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완벽히 망했다.

이제부터 명예도, 돈도, 신뢰도 전부 잃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원래부터 그런 운명이었으니까.

나는 내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어, 어째서..."

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티를 냈다.

겁에 질린 듯한 표정부터 황급한 움직임까지 완벽했다.

"네가 레티아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는 증거다."

제 1 황자, 알트레온이 내 앞에 서서 말했다.

그리고 품에서 노트 한 권을 꺼내 내 앞으로 던진다.

내 일기장이다.

일기장에는 내가 레티아를 어떻게 괴롭혔고, 괴롭히며 어떤 희열을 느꼈으며, 어떻게 이 공작가에서 쫓아낼 것인지 짠 계획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제, 제, 일기장을."

억울하다는 듯이 땅에 떨어진 노트를 주우며 말했다.

사실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았다.

애초에 전부 다 내가 짜고 치는 판인 데다가, 일기장이라는 이 노트에는 소설 속에서 시엘라가 적었던 것과 같이 적어 놓았을 뿐이다.

적는 것에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뭐, 억울할 것까지야.

분명히 원작 소설에서도 이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시엘라가 레티아를 어떻게 괴롭혀 왔는지 전부 들통이 나면서, 공작가에서 쫓겨나야 했던 레티아의 위신이 회복된다.

그리고 시엘라는 이제까지 남몰래 레티아를 괴롭힌 값을 치른다.

값을 치뤘다고 하는 것은, 공작가에서 쫓겨나는 것.

여주인공인 레티아가 아닌 일개 악역일 뿐인 시엘라가 공작가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역할에 충실히 임했다.

내가 이렇게 쫓겨나야지만이 레티아가 남주인공들과의 인연을 이어갈 테니까.

악역인 시엘라는 이만 퇴장할 시간이다.

여주인공은 앞으로도 창창한 미래가 남아 있을 테지.

"당장 레티아에게 사과하는게 좋을 거다. 네가 무슨 짓들을 한 건지는 알고 있는 건가? 정말이지 역겹군."

알트레온이 말했다.

곧 있으면 제 1 황자의 권한으로 나를 공작가에서 퇴출시켜 버리겠지.

공작가에서 나를 내보내는 것에는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도 모두 동의할 것이다.

소설 속에서 그랬듯이.

"레티아, 황자님한테 말해 줘, 내가 그러지 않았잖아?"

시엘라의 다음 대사는 이랬다.

황자의 뒤에 서 있던 레티아에게 애원하는 것.

"레티아? 그렇지? 난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어, 알고 있잖아?"

입 밖에 내기도 싫은 구질구질한 대사였지만 어쩔 수 없다.

소설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대사를 쳤었으니까.

시엘라는 원래 이런 캐릭터였다.

"시엘라."

황자의 뒷편에 서 있던 레티아가 앞으로 걸어나왔다.

여주인공이 말을 할 시간이다.

비굴하게 무릎을 꿇은 시엘라를 처단할 시간.

"당신이 저를 공작가에서 내보내려고 하셨죠. 항상 저를 싫어한다는 듯이 행동하셨고, 자잘한 괴롭힘까지 전부."

레티아가 말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정확한 평론이다.

벌받을 만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일어난 일이다.

자업자득.

"그러니 죗값을 치르세요."

여주인공인 레티아의 말에, 시엘라는 충격받은 표정을 짓는다.

납득할 수 없다는 듯이 행동한다.

반항하는 시엘라를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황실 기사들이 제압한다.

모든 것은 소설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 1 황자가 판결을 내린다.

"-시엘라 아르테르크. "

내 이름을 호명한다.

"이제껏 레티아를 괴롭혀 온 동시에, 명예를 실추시켜 공작가에서 쫓아내려 한 죄로-"

완벽한 결말이다.

여주인공은 이 사건으로 인해 황자와의 거리를 더 좁히게 될 것이다.

소설 속에서는 커다란 진전을 이룬 사건이다.

여주인공의 크나큰 걸림돌인 시엘라가 제거되었으니까.

"-아르테르크 공작가에서 제명한다. 이것에는 아르테르크 공작 외 여러 사람들이 동의한 바다."

아르테르크 공작이라 하면 내 아버지다.

아버지까지도 내가 공작가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쉽게 납득하셨던 건가.

그래도 나름 부모님과는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 당장 밖으로 꺼지도록."

황자가 말에 분노를 담았다.

그 사랑하는 레티아가 이제까지 당해온 것들이 전부 내 탓이었다고 한다면 화날 만도 하지.

"황자님의 말이 맞다. 더 이상 네 응석을 받아줄 사람은 없으니, 당장 떠나도록 해라. 너와 같이 수치스러운 건 우리 아르테르크에 필요하지 않다."

"아, 아버지..."

진짜로 나를 내치는 것에 전혀 미련이 없어 보였다.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인간들을 엄청나게 싫어하시니 그런 것이다.

애초에 시엘라가 레티아를 공작가 밖으로 내쫓으려던 계획을 짠 것도 아버지가 명예를 중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였다.

황제가 시엘라를 강제로 공작가에서 쫓아낸 이후, 시엘라는 마지막까지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고 공작가의 저택을 떠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결국 무력에 진압당해 공작가 밖으로 쫓겨난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다.

"...끝났다."

소설 속에서는 그렇게 시엘라에 대한 묘사를 끝마쳤다.

여주인공 레티아의 주된 적 중 하나인 시엘라는 그렇게 비참하게 끝을 맞이한다.

항상 고집불통에 어리광부리기만 하던 시엘라는 바깥 세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시엘라가 아니다.

시엘라는 책 속 인물이고, 일개 조연 악역이었을 뿐이다.

내가 시엘라의 흉내를 내기는 했지만, 나 역시 이런 시엘라의 행동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나는 맹목적으로 레티아를 괴롭히던 시엘라와는 달리 제정신이라는 소리지.

한동안 공작가의 공녀로써 귀족 생활을 누렸다.

소설 속에 들어오기 전처럼, 평범한 시민 1의 생활로 돌아갈 시간이다.

사실 어느정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기도 하다.

악역 공녀라는 역할을 내던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나 어째선지 익숙한 목소리가 나를 불러세웠다.

여주인공에 곁에 있던 남자 주인공들 중 하나.

레한 실레이르.

네가 왜 여기 있어?

지금쯤이면 여주인공과 함께 있어야 했을 텐데?

책 속의 악역이 되는 것은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다.

권선징악의 대상이자, 누구에게도 호감을 사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

시엘라는 그런 악역이었다.

'책 속과는 다르게 행동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소설 속에 들어왔을 때의 시엘라는, 아직 레티아를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여주인공인 레티아가 공작가에 들어오는 건 몇 개월 뒤였다.

시엘라의 평판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

예쁜 짓 좀 하고, 착실하게 행동한다면 아마 좋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레티아랑도 사이좋게 지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시엘라가 처음부터 레티아를 싫어했던 것은 아니다.

레티아가 자신의 위치를 빼앗아 간다고 느낀 그날부터 괴롭힘을 시작했던 거지.

나는 소설 속 시엘라와는 달리 비교적 성숙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레티아를 괴롭히는 일 없이 좋게좋게 스토리를 풀어나갈 자신도 있다.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권선징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아이는 레티아라고 한다. 우리 아르테르크 공작가의 새로운 일원으로 맞이해 주도록.

어느 날인가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레티아를 공작가에 데리고 왔다.

원작 소설대로라면 시엘라는 그 자리에 없었어야 했지만, 나는 레티아가 오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 저택 중앙으로 나와 있던 참이었다.

-이제 네 이름은 레티아 아르테르크란다.

그곳엔 레티아에게 한없이 다정한 모습으로 말하는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공작가의 사용인들 모두가 레티아에게 관심을 가졌다.

아마도 원래의 시엘라라면 이쯤에서부터 불만이 생겼을 것이다.

새로 왔다는 아이는 어째선지 얼굴도 제대로 비추지 않고, 모두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한 채로 있었으니까.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으며 레티아에게 살갑게 다가갔다.

"안녕, 레티아?"

"..."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레티아가 버릇이 없거나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소설 설정상, 레티아의 과거는 어두운 편이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

"저리 가."

레티아와 시엘라의 나이는 9살.

확실히 어렸을 적의 레티아는 까칠한 편이었다.

원래 성격이 밝은 편인데, 그놈의 어두운 과거가 문제였다.

'소설 초반부에 레티아가 다른 사람에게 거부 반응을 보였다고 하긴 했는데, 이 정도였을 줄은.'

친해져 보려고 했지만 친해질 수가 없었다.

소설 속에서는 어땠더라?

레티아는 공작가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우연찮게 남주인공 중 하나를 만났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하며 원래의 밝은 성격을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제 1 황자랑 만나야 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됬더라?

얼마 안 지나서 책 속 내용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평소에 즐겨보던 소설이라 망정이지, 아니었더라면 절대로 기억해내지 못했을 터이다.

'내가 원인이었나?"

이날이 시엘라가 레티아를 처음 괴롭힌 날이다.

자신의 말을 받아주지 않는 레티아에게 화가 난 시엘라가 일을 저지른다.

옆에 놓여 있던 물컵을 레티아에게 쏟는 것.

컵에 든 물을 맞은 레티아는 울면서 방 밖으로 뛰쳐나간다.

그렇게 하염없이 복도를 달려 나가다가 부딪히며 만나는 사람이 제 1 황자다.

'어떻게 해야 하지.'

황자를 만나지 않으면 여주인공은 성장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내가 여기서 첫번째 괴롭힘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래도 정신적으로 아픈 애한테 물을 쏟아붓는 짓은 하기 싫다.

그러나 소설 속의 시엘라는 거침없이 그런 짓을 했다.

그리고 시엘라의 모든 악행은 결국 여주인공에게 있어서는 전화위복이 된다.

-촤악.

짧게 고민한 끝에 레티아에게 컵에 든 물을 쏟아부었다.

소설 속의 시엘라와 같이, 레티아를 향해 비웃음을 지어 보였다.

죗값은 소설 속에서 그랬듯이 나중에 공작가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치르기로 했다.

물을 맞은 레티아가 당황하며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바로 방 바깥으로 뛰쳐나간다.

'저리 가라고밖에 안 했는데 물을 쏟아버리다니.'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만 버텨냈다.

소설 속 전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레티아와 친하게 지내는 계획은 접었다.

괴롭힘을 시작한 이상 친하게 지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원치 않는 악행을 하자니 마음이 좀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다.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사실 이런 악역 따윈 맡고 싶지 않았는데.

기왕 역할놀이를 할 거라면 주인공 역이나 좀 더 편한 역을 맡고 싶었다.

"하,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열심히 기억 속의 대사를 읊었다.

"이 고귀한 아르테르크 가의 식탁에 네가 앉을 자리는 없어. 주제넘은 짓은 하지 말란 말이야."

"너 같은 건 아버지가 주워오시지 않았더라면 이미 죽어 있었을 텐데."

마주칠 때마다 폭언을 내뱉었다.

말할 때마다 죄책감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지만 다 필요한 일이라는 계산 하에 행동했다.

소설 속의 레티아는 시엘라의 괴롭힘을 전부 이겨냈으니까.

실제로도 이겨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고.

그리고 시간은 흘러갔다.

레티아는 여러 방면으로 성장했지만 시엘라는 그렇지 못했다.

나는 여주인공의 인생길에 끼어들어 훼방을 놓는 역할에 충실히 임했다.

시엘라는 갈수록 자신의 힘을 키워나가는 레티아에게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레티아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거라는 불안감.

역할에 몰입하여 틈틈이 일기를 적어나갔다.

-오늘은 사람들 눈을 피해서 곰 인형을 태웠다. 레티아가 소중하게 여기던 거였으니까.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레티아를 아르테르크 가문에서 쫓아낼 생각이다. 어떻게든.

라고 써 놓기도 하고,

-레티아, 나는 네 명예를 실추시킬 거야.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그럼 아버지가 다시 나를 봐주시겠지.

-내 자리를 되찾을 거야. 여차하면 너를...

이런 식으로 일기장에 전부 적어 놓았다.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일기장은 책상에다가 놓고 나가면 되겠지.'

방을 청소하기 위해 들어온 하녀 한 명이 일기장을 훔쳐보게 되고, 충격적인 내용을 본 하녀는 그것을 윗선에 보고한다.

그 후 여차저차해서 공작가에 잠시 머물고 있던 제 1 황자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된다.

일기장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내 방을 들쑤시기도 했다.

실제로 사람들이 내가 시엘라를 괴롭힌 증거들 여럿을 찾아내기도 했고.

-네가 레티아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는 증거다.

제 1 황자, 알트레온이 내 앞에 서서 말했다.

그리고 일기장을 꺼내 내 앞에다가 던진다.

그렇게 쫓겨나는 것까지 완벽했을 터이다.

여주인공을 괴롭히다가 파멸하는 단순한 악역으로.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나 어째선지 그가 나를 불러세웠다.

레한 실레이르.

레한은 제 1 황자인 알트레온보다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남주인공이다.

조연이라기엔 비중이 크고, 메인 주인공이라기엔 애매한 위치의 캐릭터.

내가 있던 아르테르크 공작가와 실레이르 공작가가 교류를 시작하며 레한은 레티아와 자주 마주치곤 했다.

'어디로 가는 거냐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을 것이다.

싫어했으면 싫어했지 친근감을 느낄만한 사이는 아니다.

애초에 이 인간도 나를 공작가에서 쫓아내는 것에 협조했을 텐데, 갑자기 나한테 와서 말을 거는 이유가 뭘까.

"당신에게 말해드릴 이유는 없을 텐데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답했다.

"갈 곳이 달리 없을 텐데."

레한이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는게 이상하다.

레한은 내가 어디로 가든 전혀 상관쓰지 않아야 정상인데.

'내가 레티아한테 너무 심하게 대해서 복수하러 왔나?!'

확실히 뒤에서 몰래 해코지하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여주인공 몰래 복수를 성사시키려는 것이라면 내 목숨이 위험하다.

책 속에서는 어땠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써 무시했다.

도망치자.

여주인공과 관계가 돈독한 사람일수록 나에 대한 증오감이 엄청날 것이다.

시엘라는 다른 사람의 증오심을 유발하기 위한 캐릭터니까.

그렇게 발걸음을 돌리려던 차에, 레한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가지 마."

묘하게 진지한 얼굴로 말한다.

손목이 붙잡혀서 도망치지도 못한다.

사람이 없는 으슥한 곳에서 처리하려는 건가?

악역 공녀 역할은 끝났다.

여주인공도 알아서 잘할테니, 이제는 나 혼자서 자유롭게 살 시간이다.

"죄송합니다."

"어?"

손목을 잡고 있던 레한의 손을 떼어낼 수가 없다.

아마 레한은 내가 레티아에게 더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위험 요소는 미리미리 제거하려 하는 성격이니까.

"다시는 아르테르크 가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요."

"무슨 소리를-"

레한이 어이가 없다는 듯 표정짓는다.

하긴, 지금까지 내가 한 짓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넘어가 줄 리가 없지.

"원하신다면 어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죽을 테니까-"

손목을 잡은 손을 떼어냈지만, 이번엔 양어깨를 붙잡혔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물었다."

레한의 분위기가 더 사나워졌다.

"어째서 죽으려는 건지부터 설명해."

레한이 묘하게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째서 죽으려고 하냐니, 내가 죽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었나?

원하는 거라 하면 여주인공의 복수밖에 없을 것 같았는데.

"-죽게 내버려 둘 것 같냐."

레한이 조용히 중얼거렸지만 다 들렸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쉽게는 안 죽여주겠다는 소리인가?!'

여주인공인 레티아에게 한 짓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물을 끼얹은 일부터 공작가에서 쫓아내려 한 일까지 전부 떠오른다.

내가 생각해도 심한 짓들을 좀 많이 했다.

나를 쉽게 죽이기에는 분노가 너무 큰 것일지도 모른다.

"그, 저 혼자 죽으면 피해 입는 사람 없이 깔끔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죽는다면야, 공작가의 자제인 레한이 손을 더럽힐 필요가 사라진다.

진짜로 죽을 생각은 없으니 봐로 멀리 도망갈 거지만.

공작가에서 쫓겨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한 것들이 잔뜩 있다.

여기서 잡혀 여주인공의 복수를 당할 수는 없다.

"...절 그냥 보내주시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굳이 네 손을 더럽혀가며 나를 죽이고 싶지는 않을 텐데.'

여주인공인 레티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날 죽이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다.

지금 바로 나를 죽이려 들지 않는 걸 봐서는 복수심보단 레티아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더 커 보인다.

그러니까 단순한 악역일 뿐인 시엘라는 놔두고 갔으면 좋겠는데.

"시엘라."

"레티아는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테니까 안심하세-"

"시엘라!"

흠칫.

큰 소리로 이름을 불러서 놀랐다.

이렇게 감정적인 캐릭터가 아니었을 텐데.

레한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일단, 너... 이전이랑은 태도가 너무 달라졌잖아."

바로 직전보단 차분한 목소리로 말한다.

조금 진정된 건가.

'태도가 달라지긴 했는데, 왜 그런 걸 신경 쓰지?'

현재의 태도가 불편한 모양이다.

그보다 내 어깨를 놔줄 생각은 없는 건가.

"제 태도..."

내 태도가 달라진 것이야 당연한 일이다.

공작가에서 쫓겨난 이후로도 같은 대접을 받을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다.

소설 속의 시엘라도 그랬고.

"말투가 불편하신가요?"

존댓말을 써서 그런가?

이전에는 반말로 대해 왔지만 이젠 동일한 신분이 아니라서 어쩔 수가 없다.

존칭을 붙여 말하지 않는다면 무슨 짓을 당하게 될지 몰라서 그런 것인데.

내가 말투를 바꿔서 그런가 레한 역시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것 같다.

공작가에서 추방당하기 전의 나였다면 반말로 대응했을 테니까.

갑자기 상대방이 반말에서 존댓말로 옮겨가는데 대하기가 어렵긴 하겠다.

"단순히 네 성격이 바뀐 것 같다는 말이다."

레한이 천천히 말을 이어나간다.

"평상시의 너는... 이러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군."

원작의 시엘라는 항상 기고만장한 캐릭터로 묘사되었고, 나 역시 충실히 그에 따라 행동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냥 죽을까 싶어 겁에 질렸을 뿐이다.

시엘라라면 지금 상황에 어떻게 행동했을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원래의 내 성격으로 돌아간 것이다.

시엘라라는 소설 속 캐릭터를 버리고.

"놔주지 않으실 건가요."

한쪽 팔로는 여전히 내 어깨를 붙들고 있는 상황이다.

빠져나가 봤자 다시 잡힐 것이 뻔해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있다.

'이대로 잡혀가서 죽는 건 싫은데.'

하긴, 원작 소설만 봐도 시엘라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가 널려 있다.

그렇게 공작가에 대한 집착이 심했던 시엘라인데, 공작가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포기할 리가 없었다.

주인공인 레티아를 만나기 위해 분명 다시 찾아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레티아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는 시엘라가 공작가에서 퇴출당한 이후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다.

"내가 놔주면 죽으려고?"

레한이 비웃으며 말한다.

"네."

곧바로 대답했다.

내가 진짜로 죽을지, 나중에 레티아에게 해를 끼치려 할지 떠보는 거라면 소용없다.

어서 안심하고 나를 갈 길 가도록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주세요."

원하는대로 죽어줄 테니까 보내주었으면 한다.

물론 진짜 죽으려는 건 아니지만, 다신 눈앞에 안 나타나면 되는 일이다.

레티아의 안전은 보장되어 있는 거지.

나는 일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공작가를 나오기만 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설마 레한이 레티아의 복수를 하기 위해 쫓아올 줄은.

애초에 이건 소설 속에 쓰여있지도 않은 내용이다.

내가 여기서 대응을 잘못하여 죽는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다.

여주인공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다가 정작 내 행복은 지키지 못하는 것이니까.

나는 죽기 싫다.

죽고 싶었더라면 얌전히 레한을 따라가서 복수를 당했겠지만, 이대로 인생 종 치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레티아에게 미안하다고만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잡고 있던 레한의 팔을 떼어냈다.

"어차피 다시 볼 일은 없을 테고-"

"-공작가에서 쫓겨나서 그러는 건가?"

레한이 말했다.

"공녀의 직위를 잃은 것에 절망한 거야?"

"네?"

"그것도 아니라면 죽겠다는 소리는 왜 하는 건데."

레한의 태도가 조금 이상하다.

어쩐지 조금 슬퍼 보이는 것 같기도.

다시 생각해보면, 살의를 가지고 나를 대한 것 같진 않았다.

계속해서 내가 왜 죽으려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혹시 처음부터 나를 죽일 생각이 없었나?'

하긴 나름 남주인공인데 사람을 막 죽이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다.

레한이 본래 냉혈한이라고 소문이 난 탓에 오해한 것일지도 모른다.

"죄송합니다."

사과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나오는 대로 말을 뱉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놓아주세요."

나를 죽이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딱히 복수를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그냥 내가 처음에 너무 겁을 먹었던 것 같다.

나한테 복수할 것도 아니면 왜 나를 찾아온 걸까.

"우리가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 모습을 보고서는 이상한 소문을 퍼트릴지도 몰라요."

레한은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저 어째선지 조금 충격받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

"이제와서 사과하는 것도 우습지만, 레티아한테 정말 미안했다고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달렸다.

레한은 따라오지 않았다.

'다시 붙잡히는 건 싫어.'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할만한 곳으로 달리면서 계속 생각을 이어나갔다.

만약 레한이 진심으로 레티아의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나는 이미 죽어 있었을 것이다.

어쩐지 모르게 나에 대한 적의가 없어서 망정이지.

그러니까 도망쳐야 한다.

저택에서 내가 저지를 만행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자.

악역 시엘라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소설 속 세계에 재등장하는 일은 없다.

"찾, 았다."

달리기를 멈췄지만 숨이 거칠게 차오른다.

레한이 나를 찾아오지만 않았더라면 진작에 도착했을 장소.

나무가 우거진 숲속이다.

공작가 영지 근처라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장소다.

-시엘라, 벌써 용돈을 다 쓴 거니?

불현듯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모습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사치가 너무 심하구나, 경제학 쪽 선생을 알아보도록 해야겠다.

공작가 영애의 용돈은 적지 않았다.

한 달에 받는 용돈이 평민들의 몇 달치 월급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그러나 시엘라는 그 많은 돈을 하루만에 다 썼다고 혼난 적이 있었다.

원작 소설의 시엘라는 자신이 좋아하는 옷이나 장신구를 마구 샀었지만, 나는 공작가에서 쫓겨났을 때 쓸 돈을 마련해 두었다.

"옷이랑, 생활용품이랑, 돈까지, 아무런 문제 없네."

나무 틈 사이에 끼워져 있던 바구니에는 내가 미리 넣어둔 생존 용품들이 들어있다.

이걸로 며칠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돈을 사용한다면 못해도 몇 달 정도는 버티겠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평민으로 보이기에 너무 고급스러우니 비교적 수수한 옷을 걸쳐야 한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필요한 물품들을 전부 챙겨서 숲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공작가에서 쫓겨나기 전에 비밀리에 준비해 둔 마차를 탔다.

시엘라가 공작가에서 쫓겨날 시일과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레한이 예상치 못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지만,

"아델까지 가신다고요? 다른 일행은 없는 게 확실하십니까?"

평상시라면 하인을 비롯한 수행원들이 시엘라의 외출을 따라갔었기에 하는 소리다.

마부가 보기에는 내가 여전히 귀족 영애로 보이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우스운 일이다.

"네, 아델까지 가 주세요."

목적지는 아르테르크 공작가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마을이다.

아델이라고, 소설 속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마을.

책에서는 굉장히 평화로운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니 그곳에 가서 평화롭고 조용하게 살 계획이다.

레한한테는 알아서 죽을 거라고 말해버렸지만, 역시 죽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들지 않는다.

다시는 소설 속의 캐릭터들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며, 공작가를 떠났다.

마차가 출발했다.

덜컥거리는 마차 안에서 주변 풍경을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아델까지 가는 것에 걸리는 시간은 하루 남짓.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공작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도망치자.

소설 속 내용에 잠식당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이제부턴 편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소설 속의 아델은 분명 평화로운 동네였다.

완벽히 낯선 사람인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정도로 평화롭길 바란다.

우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시엘라가 소설 속 악역이었다는 증거를 없애야 한다.

더 이상 아르테르크 공작가의 사람들과 엮일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도 하고.

물론 여주인공도, 기타 남주인공이나 조연들을 포함해서.

'깔끔하게 사라지고 싶은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다신 마주치기 싫다.

'이름을 바꿔야 하나?'

누군가가 내 이름을 듣고 찾아온다면 낭패다.

심지어 레한에게는 죽네 뭐네 하는 소릴 했는데 다시 만나기가 무섭다.

'기대된다.'

어쨌든 자유다.

소설 속의 대사를 어거지로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

여주인공과 엮여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졌다.

평화로운, 새로운 시작.

미래에 대한 여러가지 계획을 짜며 마차 바깥을 구경했다.

마차가 숲 속 한가운데에 난 길을 달린다.

-덜컹.

마차가 멈췄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질 않고 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말을 몰고 있던 마부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분위기가 이상하다.

마차 창문 밖으로 여러 사람들의 인형이 얼핏 보였다.

-끼익.

마차의 문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제 2 황자님의 명령이신지라."

마부가 마차의 문을 끝까지 열어놓으며 말한다.

마부가 말한 제 2 황자는, 제 1 황자 알트레온의 동생인 아르안.

여주인공인 레티아을 남몰래 좋아하는 조연 1 로 취급받았던 캐릭터다.

소설 속에서도 그랬듯이 시엘라와는 그다지 연관점이 많지도 않았는데.

"저도 이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명령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마부의 태도를 보니 불안감이 엄습해오기 시작했다.

마차 문 바깥으로 보이는 것은 무장한 기사들.

'황족 친위대?'

흉갑에 황실의 문장이 새겨져 있는 걸 보면 황족의 기사들이 분명하다.

황궁에 있어야 할 기사들이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끌어내려."

황실 기사 한 명이 명령한다.

끌어내리라고 안 해도 알아서 내려가 줄 텐데.

-쿵.

아프다.

흙바닥에 떨어졌다.

마차에서 거칠게 끌어내려졌다.

"처리해라."

옆에 있던 기사 한 명이 검을 뽑아 들었다.

누가 봐도 기사가 날 죽이려는 상황이다.

도망치고 있는 나를 누가 쫓아올 수는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마부까지 한통속이었을줄은 생각도 못했다.

'도망쳐야 해.'

그런 생각이 든 즉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달렸다.

기사들이 대기하고 있지 않은 곳으로 도망쳤다.

"잡아."

-팟!

무언가가 몸을 옭아매기 시작했다.

-쿵!

땅바닥에 넘어졌다.

결국은 세 걸음도 못 가서 붙잡혀 버렸다.

이 특유의 불쾌한 느낌은, 마법이다.

돌아보니 자색의 후드를 덮어쓴 마법사 한 명이 보인다.

궁정 마법사까지 데리고 왔을 줄은 몰랐다.

마법이 아니었더라도 결국 기사들에게 붙잡혔겠지만, 정말 작정하고 나를 잡아 죽이려 한 것이 느껴진다.

기사들이 마법에 발이 묶인 나를 끌고 돌아온다,

이젠 정말로 희망이 없다.

"저, 저를 왜 죽이시려는 건가요?"

옆에서 검을 뽑아 든 기사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아무리 소설 속 세게라도 죽는 것은 무서우니까.

"..."

기사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었다면 내가 살아날 길은 전혀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마차에서 끌어내려진 시점부터 망한 거다.

공작가에서 쫓겨난 악역 공녀는 여기서 죽는다.

시엘라가 죽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는데, 실제로 죽을 위기에 처했다.

처음 나를 쫓아온 레한이 문제가 아니었다.

제 1 황자라던가 다른 남주인공들이 나를 죽일 가능성까진 생각해 봤지만, 제 2 황자가 나를 죽이려 할 가능성은 생각치 못했다.

제 2 황자는 그저 레티아를 몰래 좋아할 뿐인 조연이다.

존재감이 적어 티가 나진 않았지만, 레티아를 괴롭히는 내가 어지간히도 싫었던 모양이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나에게 칼을 겨눈 기사가 기사단장으로 보이는 자에게 묻는다.

사람 좀 괴롭혔다고 죽여버리는건 확실히 너무하긴 했다.

"아무리 아르안 황자님의 명이라 해도-"

"덴, 지금 황실 기사가 황자님의 명령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건가?"

"아닙니다."

아마도 나를 죽이라고 명령받은 기사의 이름이 '덴'인 모양이다.

나한테 동정심을 가지는 것 같다.

기사단장과 대화를 나눈 뒤에도 검을 들고 망설인다.

"죽기 싫어요."

시엘라가 흘린 눈물이 흙바닥에 떨어진다.

죽는다고 생각하니 확실히 감정이 격해진다.

덴이라 불린 기사가 다시 한 번 기사단장을 쳐다본다.

기사단장은 냉정하게 죽이라고 명령할 뿐이다.

기사가 고민하더니 검을 내려꽂을 준비를 한다.

"사, 살려주세요. 죽이지 말아주세요. 제발."

날카로운 검 끝이 나를 향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겐 망설임이 있었다.

"덴! 어서 처리해라. 여기서 너에게 이 일을 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느냐!"

기사단장이 소리친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덴이라는 기사가 나를 죽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웬만하면 안 죽여 줬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이번엔 진짜로 처리할 거라는 것처럼 검을 들어올린다.

'죽는다.'

레한과 같이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라면 대화라도 시도해 보겠지만, 이번엔 그런 행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애초에 나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제 2 황자부터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소설 속에서도 잘 등장하지 않던 캐릭터라 정말 아는게 없다.

이대로 죽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현재 제 2 황자의 나이는 15살.

누군가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에도 너무 어린 나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덴이라는 기사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황자의 나이가 어리기에 더욱 망설이는 것이겠지.

'소설 속 시엘라는 이런 식으로 죽었던 거구나.'

소설 속의 시엘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니, 애초에 진짜 시엘라는 나처럼 마차를 타고 도망쳤을지부터가 의문이다.

혹은 도망칠 생각도 없었을지도.

-푸욱.

차가운 장검이 몸을 깊숙히 뚫고 들어온다.

"아..."

기사가 내 몸에서 피 묻은 검을 다시 빼내는 것이 보인다.

엄청난 고통이 엄습한다.

"아파..."

몸이 힘을 잃고 바닥에 엎어진다.

몸에서 새어나온 피가 흙바닥을 적신다.

정신이 멍해진다.

"-그 정도면 됬다."

기사단장이 말하는 소리.

"-마차 일부를 부숴서 산적의 습격을 받은 것처럼 꾸며라."

"예!"

대기하고 있던 기사들이 마차를 처리한다.

"돌아가서 목표물이 사망했다고 보고한다."

"증거품을 챙길까요?"

"그래, 목걸이를 메고 있군. 빼내서 가져가라."

"예."

직후 누군가가 목에 걸린 목걸이를 가져갔다.

"철수한다."

기사단장이 그렇게 말한 뒤로, 더 이상 사람들의 대화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떠나갔다.

시엘라는 이곳에서 죽었다.

공작가에서 쫓겨난 것으로도 죗값을 치르기에 부족했는지, 마차까지 매수해서 죽인다.

이미 공녀 자리에서 쫓겨났기에 반항할 건덕지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시엘라는 확실하게 죽었다.

쿨럭.

기침과 함께 숨을 거칠게 내뱉었다.

분명 시엘라는 죽었다.

그러나 나는 시엘라가 아니다.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상하고 있었다.

"생각보다도 아프네..."

죽음의 공포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기사의 칼이 파고드는 그 감각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다.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다."

옷은 피투성이에, 땅바닥의 흙이 묻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몸에는 흉터 하나 남지 않을 거라는 것.

한번만 찔려서 다행이다.

"보호구가 제대로 작동했어."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가지고 있던 보호구.

마법으로 만들어진, 착용자를 단 한 번 치명적인 일격에서 보호해 주는 도구다.

판타지 소설 속인 만큼 마법이란 것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고, 아주 소수의 축복받은 인원만 사용하는 정도.

사용자를 보호해 주는 마법 보호구는 보통 전쟁터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굉장히 비싼 편이다.

그러나 나는 귀족이었기에 하나 정도는 구비해 둘 수 있었다.

구비해 뒀다기보단... 이전에 여주인공에게서 가져온 것인데, 설명은 나중에 하겠다.

'뺏겼지만.'

목에 메고 있었던 목걸이가 그 보호구였다.

그런데 그걸 기사들이 나를 죽였다고 보고하기 위해 챙겨갔다.

그래도 생명을 보호해주는 마법은 일회용이니 큰 의미는 없다.

"챙겨온 것들도 많이 사라졌네."

망가진 마차 안에서 내 짐을 찾으려 했지만, 남아있는 것이라곤 금화 몇 개.

마저 살펴봤지만 그 이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 중얼거렸다.

상황을 파악해 보자.

나는 피투성이고. 옆에는 박살난 마차가 있다.

주변은 점차 어두워지고 있고.

일단은 길을 따라가야 하나?

마부가 아델이라는 마을을 향해 마차를 몰고 있던 것이 맞다면,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을이이 있을 것이다.

"...이대로 걸어가다 보면 뭐라도 나오겠지?"

그렇게 말하며 걸음을 옮겼다.

다행히도 나는 소설 속 시엘라처럼 죽지 않았다.

아무도 모르게 살아남았다.

내가 제대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시엘라'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곧 제 2 황자, 아르안에게 시엘라가 죽었다는 기사단의 보고가 올라갈 것이다.

악행을 일삼던 공녀, 시엘라 아르테르크를 죽였다고 하겠지.

그러나 나는 소설 속 시엘라와는 다르게 살아남았다.

그러고 보니 레한에게 죽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지.

아무튼 죽기는 했으니까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

시엘라 아르테르크라는 존재는 말끔히 사라졌다.

'누군가는 내가 죽었다는 걸 슬퍼해 줄까?'

잘 모르겠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나에게 호의적이던 사람들도 레티아의 등장 이후로는 점차 사이가 멀어져만 갔다.

'애초에 아르안이 나를 죽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 없을 것이다.

소설 속에서도 시엘라의 죽음은 묘사되지 않았으니까.

나를 죽이러 온 기사들과 마부, 그리고 그들을 고용한 아르안만이 아는 사실로 끝나겠지.

아니, 어쩌면 제 1 황자나 레한, 다른 중요 역할을 맡은 캐릭터들이라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적은 인원이지만 황실 기사단을 움직였으니까, 아르안이 기사들을 시켜 나를 죽였다는 사실이 알려질지도 모르지.

그러든 저러든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내 이미지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 그 자체니까.

오히려 내가 진짜 죽은 것도 아니니 슬퍼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아니, 조금 슬픈 것 같기도...

잡생각과 함꼐 숲속 길을 걸었다.

해가 지고 있어서 서둘러야 한다.

아무래도 해가 진 후에는 뭔가 분위기가 무서워지니까.

밤에는 위험한 동물이나, 간혹 마물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이 나온다.

마물. 아무래도 판타지 세계다 보니까 몬스터가 등장한다.

전문적으로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은 마물들을 사냥하기도 한다지만, 별다른 전투 기술을 익히지 못한 나는 그냥 죽는다.

위험한 세상이다.

제대로 마차를 타고 갈 수 있었더라면 더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진 않았겠지.

사실 아직 몇 가지 대응책이 남아 있기는 하다.

위험 상황을 대비한 마법 도구도 전부 써 버린 것은 아니다.

기사가 내 몸을 검으로 찌른 바람에 보호구인 목걸이가 날아갔지만, 비슷한 역할을 하는 반지와 팔찌가 남아있다.

이런 보호구를 사는 것에 꽤나 돈을 들였는데, 내가 가져가려고 했던 금화들을 전부 강탈당한 현 상황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

"으, 피가 축축해."

기사가 칼로 찌른 복부에는 여전히 핏자국이 남아 있다.

흙바닥에 넘어진 탓에 진흙도 조금 묻어 있고.

갈아입을 옷을 들고 왔었지만, 기사들이 마차와 함께 부숴 버렸다.

"그래도 더 이상 이렇게 습격받을 일은 없겠지."

아르안이 내가 죽었다고 공포를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쫓아올 일은 없을 테니까.

황궁 기사들이 왔을 때에는 진짜로 죽는 줄 알았다.

보호구가 있다곤 했지만, 나를 죽이려던 사람이 칼로 찌르기를 망설여서 다행이었지, 진심으로 나를 죽이려 했다면 보호구의 힘으로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집에 가고 싶다."

그런데 집이 없다.

여주인공을 괴롭혔기에 공작가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전부 알고서 한 일이다.

그러나 집에 가고 싶었다.

따뜻한 내 방이 그리웠다.

평소에 내가 누리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세삼 깨닫는다.

"마을은 안 보이는데."

예정대로라면 지금쯤이면 이미 아델에 도착해 있어야 했다.

평화로운 마을에서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야 했는데.

조금 목마르다.

배고프다.

"조금만 쉬었다 갈까."

길가에 있는 나무에 몸을 기대어 앉았다.

휴식을 취하다 가는 게 좋겠다.

빈혈 증세가 나타나는 것 같다.

검에 찔렸을 때 새어나온 피가 많았다.

보호구는 내가 흘린 피까지 자동으로 채워 주지는 않는다.

'여주인공을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불현듯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아르테르크 공작가를 벗어날 필요가 없었더라면 어땠을지 궁금하다.

아마 그랬더라면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았겠지.

그리고 여주인공인 레티아는 지금처럼 많은 친구들과 함께 지내지 못했을 것이다.

남주인공들과 인연을 만들어 꽁냥댈수도 없었을 거고.

나무에 기대앉은 채로 무릎을 끌어안았다.

외로움이 엄습한다.

시엘라는 레티아에게 점차 가진 것을 빼앗기다가 결국 공작가 자리까지 넘겨주고 만다.

빼앗겼다고 해야 하나, 벌을 받은 거라고 해야 하나.

시엘라가 얻는 것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레티아는 더욱 더 풍족해진다.

시엘라의 친구가 줄어들면, 레티아의 친구가 늘어난다.

부모님의 편애가 시엘라를 떠나 레티아에게 갔다.

사람들의 신뢰도 레티아에게로 옮겨갔다.

악역은 대가를 치른다.

지금처럼, 숲 한가운데에 혼자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도우러 오지 않는 대가를 치른다.

헛웃음이 나왔다.

만약 여주인공이 숲에서 실종되었다면 들고일어날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내가 악역을 자처했으니 불만은 없다.

눈물이 나려고 한다.

내가 무엇 때문에 울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눈을 감았더니 외로움이 더욱 더 크게 느껴지는 듯 하다.

지쳤다.

나는 그냥 소설 속 시엘라처럼 사라지면 되는 게 아닐까?

잘 모르겠다.

"명 받들어, 시엘라 아르테르크를 처치했습니다."

황실 기사단의 보고를 받았다.

"목표물이 마차로 도망치던 중에 '산적이 습격하여 사망한 것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시엘라 아르테르크는 도주 중에 죽었으며, 산적의 소행으로 처리될 것이다.

그 시엘라가 죽었다.

그렇다면 이제 레티아를 방해할 인물은 없다.

"좋아."

아르안이 미소지었다.

"이런 게 책에 나오던 권선징악이라는 건가."

시엘라 아르테르크가 레티아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눈치채 왔던 사실이다.

결국 기회를 잡아 처리할 수 있었다.

공작가에서 쫓겨난 공녀 하나 정도는 제 2 황자의 권한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레티아 누나도, 알트레온 형님도 기뻐하시겠지."

아르안은 자신의 형도 시엘라를 죽이고 싶었을 것이라 믿었다.

제 1 황자가 황실 기사단을 움직이거나 했다면 시엘라가 죽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질 수도 있었으니, 시엘라를 죽이는 것은 비교적 덜 주목받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다.

알트레온은 시엘라를 공작가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끝을 봤지만, 레티아가 당한 짓들을 생각하면 그걸로는 부족했다.

"시엘라가 쫓겨난 정도로는 언제 레티아 누나에게 다시 해를 끼칠지 모르는데, 형님은 왜 내쫓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 건지 모르겠다니까. 레티아 누나를 자신이 보호할 수 있다 이건가?"

아르안이 불만에 찬 투로 중얼거리며 복도를 걸어 나갔다.

이제 해야할 일은 하나.

'자랑하러 가야지.'

제 2 황자라는 직책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열다섯 살의 어린아이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다면 주변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누굴 찾아가야 할까?

레티아는 공작가에 있으니 당장은 찾아갈 수 없다.

알트레온은 지금쯤 자신의 집무실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알트레온의 집무실은 같은 황궁 내부에 있다,

-쿵.

아르안이 집무실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형님!"

"아르안, 노크라는 것을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 않았었나?"

만약 다른 평범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문을 열었더라면 사형당했어도 이상하지 않다.

피를 나눈 형제이기에 납득되는 일.

알트레온은 책상에서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다.

"좋은 소식이 있어!"

아르안이 신이 난 채로 말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레티아를 위한 일을 성공시켰고, 동시에 형의 칭찬까지도 들을 수 있을 테니까.

시엘라 아르테르크는 그 정도로 거슬리는 존재였다.

"뭐가 좋은 소식이지? 네가 황실 기사단을 독단으로 움직인 거?"

알트레온의 말에 아르안이 멈칫했다.

이미 자신이 한 행동을 알고 있는 건가?

하긴, 황실 기사단을 움직였는데 눈치채지 못한 게 더 이상하다.

"나는 네가 기사단을 데리고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관심 없다. 레티아 일로 바쁘니까 나가 있어."

손을 휘휘 저으며 나가라는 제스쳐를 취한다.

무슨 일을 했는지는 관심이 없다는 걸 보니 아직 아르안이 무슨 일을 해냈는지 모르는 게 분명하다.

'레티아에게 뭔가 일이 생긴 건가.'

자랑하기 전에, 알트레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던 건지 알아낼 필요성이 있었다.

"그게 무슨 일인데?"

"궁금하냐? 레티아가 나에게 부탁을 했다."

"부탁?"

아르안의 질문에 알트레온이 대답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다.

이걸 말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것 같다.

"그래, 워낙에 착한 아이니까..."

알트레온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제 1 황자로서 '착한 아이' 라고 묘사하는 것은 레티아가 유일하다.

레티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정말로 순사하게 착했으니까.

"시엘라 말고도 다른 문제가 생긴 거라면 나한테도 말해 줘."

가장 큰 문제였던 시엘라 아르테르크도 자신이 처리했다.

아르안의 마음 속에서는 레티아의 다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묘한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다.

"아니, 여전히 그 문제다."

"어, 뭐?"

알트레온이 레티아와 나눴던 대화를 다시 회상해 본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시엘라 양을 아무것도 없이 바깥으로 내쫓았는데, 그건 너무 잔인한 처사 같아서...

너무 심한 짓?

시엘라가 레티아에게 한 짓들을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지도 않다.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었던 괴롭힘이니까.

그러나 레티아는 양심에 가책을 느꼈다.

시엘라를 다시 아르테르크 가로 데리고 올 수는 없겠냐고 물었다.

물론 다시 데리고 왔다 해도 시엘라가 전과 같은 지위를 되찾지는 못하겠지만.

"시엘라를 아르테르크 가로 데리고 와야 해."

아르안은 자신이 시엘라를 죽였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설마 레티아가 시엘라를 다시 데려오길 바라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다.

"형님, 그러니까, 시엘라 아르테르크를... 찾아야 한다는 건가?"

일이 조금 잘못 돌아가고 있었다.

아르안은 황실 기사단을 움직여 시엘라를 죽여버렸고, 그 증거품으로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다.

시엘라를 찾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 찾아야지. 아마 아직 도시 안에 있을 거다."

알트레온이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한다.

"레티아를 괴롭힌 장본인을 다시 되돌려 보내겠다고?"

"레티아가 그걸 원하니까 하는 일이다. 글쎄, 난 죄책감에 휩싸인 그녀는 보고 싶지 않아서."

레티아는 착했다.

시엘라가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혀 왔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이 바깥에 내버려저 죽어가기를 원치는 않았다.

만약 레티아에게 시엘라를 찾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자신이 시엘라를 내쫓았기에 시엘라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자책하겠지.

레티아는 그런 류의 착한 사람이었다.

"뭐, 일단은 그녀가 움직이는 걸 본 사람들을 찾고 있다만, 잘 안 되면 사람을 더 풀어야겠지."

알트레온이 중얼거렸다.

아직 아르안은 자신이 시엘라를 죽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아르안이라고 해서 레티아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아르안은 기사단을 대동해 시엘라를 죽였다.

조금 전 시엘라를 죽였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명령하신 대로 처치한 증거물을 가져왔습니다.

기사단장은 시엘라가 매고 있었던 목걸이를 아르안에게 제출했다.

여전히 옷 속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목걸이가 만져진다.

"시엘라는 내가 이미 처리했어."

사람들을 보내 시엘라의 위치를 알아내고, 마부를 매수했다.

그리고 기사단을 보내 죽였다.

"-처리했다고?"

알트레온이 눈살을 찌푸리며 되물었다.

아르안이 이미 시엘라와 접촉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어디 감옥에라도 가둬놨다는 소리냐? 사람 곤란하게 만드는군."

아르안이 시엘라에게 가지고 있었던 증오가 컸던 만큼, 감옥에 가두거나 잡아두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어딘가에 구금해 둔 정도라면 귀찮지만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다.

"아니."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지?

"죽였어."

아르안이 뭘 당연한 걸 묻느냐는 듯이 대답한다.

"...뭐?"

살해.

시엘라가 레티아를 계속해서 괴롭혀왔다 해도, 그녀를 죽인다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지였기에 고려하지 않았다.

"최대한 처참하게. 잘했지?"

"농담하는 건 아니겠지?"

알트레온이 당황하며 묻는다.

당연히 농담이 아니다.

-스윽.

아르안이 주머니에서 증거품으로 받은 목걸이를 꺼낸다.

"죽이고서 가져온 거야."

은색의 얇은 목걸이.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목걸이다.

목걸이에 조금 남아 있는 핏자국이 아르안의 말에 신빙성을 더한다.

"황실 기사단을 이용했군."

알트레온의 말에 아르안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시엘라를 죽였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기사단에게 보고받은 그대로.

"...시엘라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은?"

아르안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무릇 왕위를 계승할 황자라면 무엇이든 확실시해야 하는 법이다.

"없어. 독이 든 검으로 죽이라고 명령했었고, 살아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아르안의 말에 알트레온이 눈살을 찌푸린다.

황실 기사단에게 독을 꺼내어 쓰라고 한 시점에서, 아르안이 시엘라에게 굉장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단 것을 알 수 있다.

"대체 왜 죽인 거냐?"

알트레온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아르안의 행동은 너무 독단적이었다.

이대로라면 레티아에게 시엘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야 할 판이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니까. 계속 내버려 뒀으면 나중에 다시 시엘라가 레티아 누나에게 복수하러 왔겠지. 애초에 형처럼 공작가에서 쫓아내는 것 정도로 만족하는 게 이상한 것 아냐? 자칫했으면 쫓겨나는 건 시엘라가 아니라 레티아 누나였다고."

아르안이 분노에 차서 말한다.

사실 시엘라를 그냥 죽이는 것도 내키지는 않았다.

그래서 황실 기사단에 최대한 잔혹하게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는 했지만, 시엘라가 레티아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을 생각하면 다시금 분노가 치밀었다.

"레티아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알트레온이 말했다.

아르안은 제 2 황자라곤 해도 여전히 너무 어리다.

과하게 감정적으로 행동했고, 그 결과 시엘라를 살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거야 형님, 레티아 누나한테는 시엘라가 어디 멀리~ 도망쳤다 정도로 말해 두면 되는 것 아냐?"

아르안이 능글맞은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애초에 레티아 누나는 시엘라가 공작가에서 쫓겨난 이후에 어떻게 될까 싶어서 걱정하는 거니까."

"시엘라가 먼 곳으로 갔다 하라고?"

시엘라가 이미 도망쳤기에 공작가로 돌려보내지 못했다는 이유가 생긴다.

"실제로도 그러려고 했었던 것 같으니 딱히 거짓말도 아냐. 기억하기로는 마차 목적지도 상당히 먼 곳이었는데."

아르안의 말에 알트레온이 잠시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마차를 탈 돈은 있었나?"

공작가에서 아무것도 없이 내쫓았을 텐데.

"마차는 쫓겨나기 이전에 미리 예약해 뒀다던데? 마부가 말하기로는 목적지도 며칠 전에 미리 알려줬다고 하더라."

"예약해 둔 마차?"

이상하다.

시엘라의 성격이라면, 공작가에서 쫓겨난 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야 한다.

항상 고집스럽게 행동하며 레티아에게 엄청난 적대감을 보이는 존재가 시엘라다.

공작가 영애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기만 했으니, 아무것도 없이 내쫓긴 뒤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렇기에 레티아도 시엘라를 다시 공작가로 데리고 올 수 없겠냐고 물어본 것이다.

그러나 시엘라는 미리 준비해 둔 마차를 타고 떠나려 했다.

마치 자신이 공작가에서 쫓겨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아니, 시엘라는 이미 죽었다. 더 생각해봐야 의미 없지.'

어쩌면 아르안의 선택이 옳은 것일지도 모른다.

정말로 시엘라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레티아에게 해를 끼쳤을지도 모르는 일이니.

"아르안, 기사들 입막음이나 잘 해두고 와라. 시엘라를 찾는 건 나 뿐만이 아니거든. 레한이라던가 레티아에게 부탁받은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어."

그렇게 말한 뒤, 알트레온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사실 레티아의 부탁을 듣는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조금 화가 난다.

어쨌든 이제 시엘라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레티아에게 가서 시엘라를 공작가로 데려오지 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시엘라가 매고 있었다는 목걸이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목걸이에 묻은 핏자국이 거슬린다.

그러나 물론, 시엘라는 아직 죽지 않았다.

눈을 감고 생각하고 있었다.

숲속 한가운데에서 혼자 떨어져 있다 보니 온갖 상념이 머릿속에서 뒤섞인다.

"내가 소설 속 시엘라처럼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감정적인 목소리가 튀어나왔지만 듣는 이는 없었다.

"그랬더라면..."

공작가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레티아와 친하게 지내는 것도 노력했다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여주인공이라 그런지 매우 착했으니까.

"..."

사실 소설 속 전개를 무시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공작가에서 쫓겨나지 않아도 되고, 평판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문제다.

<if. 시엘라가 주인공을 괴롭히지 않았다면?>

작가가 소설을 전부 집필한 뒤 if 시나리오, '만약 시엘라가 악역이 아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의문을 바탕으로 한 외전 하나가 있다.

나는 나름대로 이 소설을 좋아했기에 이런 외전들까지도 전부 읽었다.

시엘라가 악역이 아니었다면? 하는 짧은 외전이었지만 결말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시엘라가 레티아를 괴롭히지 않자, 레티아는 다른 남주인공들과 만날 일도 적어진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다른 캐릭터들과의 관계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여주인공이 나서서 바꿔놓아야 했던 일들도 바뀌지 않았다.

예를 들자면, 레티아게 제 1 황자인 알트레온과 힘을 합쳐 사라지게 만든 노예제도가 외전에는 그대로 있었다.

레티아가 레한과 함께 고아원 아이들을 도운 일도 없었다.

'하른'이라는 다른 남주인공과 함께 위험한 마물들을 처리한 일도 없었다.

가뭄이 온 마을에 찾아가 도움을 건넨 일도, 뒷골목의 범죄자를 잡아내는 일도 없었다.

한 마디로 말해, 시엘라가 괴롭히지 않는 외전은 여주인공의 선행이 없는 세계다.

작가 역시 '시엘라의 악역으로써의 역할이 생각보다 중요했다.'며 띄워주기도 했지.

"어쩔 수 없었어."

외전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었다.

결국 나는 레티아가 다른 남주인공들을 만나게 했고, 소설 속 전개와 최대한 비슷하게 이끌어 가는 것에 성공했다.

어쨌든 레티아는 선한 주인공 역할이다.

나는 악역일 뿐이고.

그래도 더 나은 방법이 있진 않았을까 항상 생각해본다.

"그만 가자."

혼잣말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을 잠깐 감았다 떴을 뿐인데 주변이 더 어두워져 있다.

충분히 쉬었으니 이제 빨리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런데 어째선지 머리가 어지럽다.

힘이 빠진다.

"어라?"

처음에는 검에 찔려 피가 많이 빠져나간 탓인가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빈혈 증세가 아닌 것 같다.

털썩.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뭐라고나 할까, 간단히 말해 독이라도 삼킨 듯한 기분이다.

독?

그러고보니까 소설 속에는 황실 기사단이 독을 쓰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다.

아무리 마법 보호구를 사용했다 해도 그게 만능은 아니다.

기사단이 쓰는 맹독까지는 막지 못한다.

죽는 건가?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결국 소설 속의 흐름에는 거스르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시엘라는 결국 무슨 짓을 해도 죽을 운명으로 보인다.

"이렇게는 죽기 싫은데..."

다시 눈을 감는다.

정확히는, 눈이 감겼다.

소설의 전개를 따라 악역이 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졌을 테니까.

결국 소설 속에서의 시엘라가 죽었던 것처럼, 나 역시 죽는다.

남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불행해져 버렸다.

이래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너무 미련하게 행동했던 걸까?

책 속의 주인공은 레티아였지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였을 텐데.

어느 순간부턴가 나는 소설 속 전개만을 따라가고 있었다.

내 행복을 바라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나는, 시엘라는 레티아를 괴롭혔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파탄 나고, 아르테르크 가의 공녀라는 지위는 퇴색되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점차 사라져만 갔다.

그리고 결국은 죽는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는 구원?

레티아라면 분명 누군가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을 것이다.

여주인공의 위기는 클리셰가 되고, 누구든 와서 돕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나는 여주인공이 아니다.

그러니 이대로 숲 속 한가운데에서 죽는다.

"어..."

안 죽었다.

의외로 다시 깨어날 수 있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눈을 몇 번 깜빡였다.

아직 살아있는 게 신기하긴 하지만, 아무리 여주인공이 아니라고 해도 가끔씩 행운이 따라줄 수도 있는 것이다.

굳은 몸을 일으키자, 부드러운 이불이 침대 아래로 떨어진다.

"침대?"

머리맡에 무언가 축축한 게 놓여져 있었다.

손으로 들어 올려서 그 정체를 확인했다.

"물수건?"

조금 식어 있는 물수건이다.

내 이마에 올려둔 것 같은데, 자는 새에 열이라도 났던 건가?

마지막으로 잠든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을 더듬어 본다.

숲 속이다.

그것도 잠든 게 아니라 그냥 죽어가고 있었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침실이다.

내 옷은 원래 입고 있었던 피투성이의 드레스가 아닌 다른 옷으로 갈아 입혀져 있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이곳에 대해 알 수 있는 단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우선 자리에서 일어나 보도록 하자.

"윽."

신음이 입 밖으로 새어 나왔다.

움직임이 불편한 것 같아 옷을 들춰보자, 붕대가 복부를 감고 있었다.

기사가 나를 찔렀던 곳을 감싸고 있다.

보호구가 상처를 다 치료해 줬던 게 아니었나?

"아파..."

시험 삼아 붕대가 감긴 부위를 만져 봤다.

확실히 아프다.

붕대가 없었더라면 더 아팠겠지.

아니, 애초에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진작에 죽었을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치료해 준 거로도 모자라 침대에 재워 주기까지 했다.

'대체 누가 나를?'

말하자면 이건, 마치 여주인공 같은 전개다.

레티아라면 충분히 누군가가 구해주고 재워줄 수 있었지.

그런데 나는 왜?

이번 생을 통틀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 일은 전혀 없다시피 했다.

그래서 더욱 신기하다.

열을 내리기 위한 물수건에, 상처 부위에 감긴 붕대까지.

침대나 덮고 있던 이불의 질이 높을 걸로 봐서는 아마 어느 부유층 귀족이 은혜를 베푼 게 아닌가 싶다.

누가 나를 구한 건지는 몰라도 우선 감사 인사는 해야겠지.

치료해준 것에 대한 사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지금 딱히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끼익.

잡생각과 함께 문을 열고 나갔다.

카펫이 깔린 복도가 보인다, 그리고...

"어머, 벌써 일어나셨네요."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다. 이곳에서 일하는 하녀로 보인다.

나이가 꽤 있어 보인다.

"여긴 어딘가요?"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바로 물어볼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것부터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이곳은 데르네아 백작가 저택이랍니다."

대답이 돌아왔다.

'데,데르네아 백작가?'

알고 있는 곳이다.

데르네아 백작가는 소설 속에서도 대해 묘사된 적도 있고, 나중에 주인공 일행들과 엮이기도 하는 곳이다.

문제는 데르네아 가문의 평판이 상당히 안 좋다는 점인데..

"당황스러우실 텐데, 일단은 방에서 계속 쉬셔요. 아가씨가 깨어났다고 전해야겠네요."

"전해요?"

"그야 이곳에 아가씨를 데려오신 분이죠. 우리 자랑스러운 도련님이에요."

도련님?

나를 데려왔다고?

아, 숲 속에서 날 주워다가 치료해준 사람이 그 '도련님' 인 것 같다.

데려왔다고 하면 그것밖엔 없지.

"근데 도련님이 누구..."

"자, 자, 지금은 일단 들어가서 누워 계세요. 도련님이 곧 오실 거랍니다~"

-쿵.

문이 닫혔다.

하녀가 나를 방 안으로 다시 들여보내는 바람에 바깥 구경을 제대로 하진 못했다.

하지만 아직 힘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 그냥 잠자코 쉬기로 마음먹었다.

짧은 대화였지만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상당히 친절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데르네아 백작가라고 하면 다들 기피하는 감이 적잖이 있었는데.

"아윽, 진짜 아프네..."

황실 기사에게 찔린 곳이 욱신거린다.

나를 찌른 검에 얼마나 강한 독이 발라져 있었길래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분명 제 2 황자가 나를 죽이라고 시켰다 했지.

언젠가 만날 일이 있다면 반드시 복수해주고 말리라.

그렇게 침대에 앉아서 생각하고 있었다.

-끼익.

문이 열렸다.

방 안으로 들어온 건 처음 보는 소년이다.

아까 도련님이라고 불린 애가 얘구나.

이 애가 나를 구해준 거라면 우선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

처음 보는데 어째선지 조금 익숙한 것 같기도 하다.

"시엘라 누나! 오랜만이야."

저쪽에서 먼저 인사를 건넸다.

처음 보는 사람치고는 이상한 인사말인데.

저쪽에서 오랜만이라곤 했지만 분명 초면이다.

이전에 본 기억이 전혀 없다.

"누, 누구세요?"

당황에서 말을 더듬었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 내 이름을 불렀다.

"아, 기억 못 하는구나."

묘하게 시무룩해진 표정으로 말한다.

진짜로 이전에 본 적이 있었나?

그런 의문이 들어 앞에 있는 남자애의 모습을 잘 살펴보았다.

옅은 파랑색의 독특한 머리색.

나이는 잘 쳐 줘야 나랑 비슷할 것 같다.

누나라고 부른 걸 보면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역시 모르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 인사는 해야겠지.

"어?"

"절 구해주셨지 않나요?"

"구해준 건 맞아, 그냥 이전이랑은 상황이 반대가 되어있는 게 신기해서."

이전?

정말로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난 얘가 누군지 이름조차 모른다.

"성함이...?"

"응? 나는 아렐이야. 아렐 데르네아. 자기소개를 안 했었네."

아렐 데르네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다.

그래도 여전히 누군지 모르겠다.

내 기억력이 문제인 건가?

"궁금한 게 많겠지만 일단은 쉬어, 누나. 어쩌다가 숲 속에 쓰러져 있었는지는 몰라도..."

아렐이 말을 이어나간다.

"그럼 우선 아르테르크 가에 연락해 줄까? 우리 데르네아 집안이랑은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시엘라 누나가 여기 있다고 하면 바로 데리러 올지도 몰라."

시엘라는 아르테르크에서 쫓겨난 채로 죽임당했다.

"그, 그러지 말아 주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좋을 것 하나 없다.

제 2 황자, 아르안이라면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다시 죽이러 올 게 뻔하고.

"어째서?"

아렐이 이유가 궁금하다는 듯 묻는다.

"쫓겨났거든요."

"뭐?"

아렐의 표정이 굳는다.

나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이어나갔다.

"...제가 아르테르크 가문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가서 말해 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

아르테르크 가에 찾아가서 내가 살아있다고 말한들 다시 공작가로 들여보내줄 일도 없고.

그냥 민폐덩어리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고 광고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정말이야?"

아렐이 서늘한 목소리로 되묻는다.

"네, 네, 그러니까 연락은 안 해 주셨으면 해요."

이곳 데르네아 가문이 아르테르크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다행이다.

사이가 좋았더라면 이미 연락이 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알았어. 연락하지 않을께."

아렐의 목소리가 다시 평온해졌다.

싸늘한 표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나한테는 그냥 반말 써도 괜찮아, 누나. 적응이 안 돼. 이전에는 내가 존댓말을 썼었는데 말야."

그러고보니 계속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렐이 거부감을 느낀 모양이다.

공작가에서 나온 뒤로는 난 그냥 일반인일 뿐이다.

그래서 난 평범한 사람이 귀족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취했을 뿐이다.

"음, 그렇게 할께...요."

지금 말투에는 신분의 차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존댓말을 쓰는 거다.

우리가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지 묻진 못했지만, 내 기준으로는 여전히 초면이다.

나한테 과하게 친절하게 굴고는 있지만, 글쎄.

-턱.

어?

아렐이 내 이마에 손을 짚었다.

"이제 열은 없는 것 같네, 그래도 푹 쉬는게 좋을 거야. 아직 다 낫지는 않았으니까."

가까이 다가온 덕에 얼굴이 잘 보인다.

뭐랄까, 잘생겼-

"그, 전 이제 괜찮아요."

아렐의 손을 떼어놓으며 말했다.

어째선지 얼굴이 달아오르려 했다.

"아직은 무리하면 안 돼."

아렐이 나를 침대에 밀어넣다시피 하며 말한다.

"잘 자, 누나."

그 말을 끝으로, 아렐은 방문을 닫고 나갔다.

남이 보기에도 졸려 보였던 건가?

멀쩡한 척 하긴 했지만 팔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생각을 많이 해서인지 머리도 아프다.

데르네아 백작가.

소설에서 묘사된 것처럼 나쁜 곳은 아닌 것 같다.

졸음이 쏟아진다.

눈이 감긴다.

"레티아는 어디에 있지?"

알트레온은 아르테르크 공작가에 도착했다.

황궁과 아르테르크 공작저의 거리가 먼 편은 아니었다.

아르안이 자신에게 준 목걸이는 우선 간직하고 있었다.

최소한 아르안이 가지고 있는 것보단 알트레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레티아 아가씨는 지금 방 안에 계십니다."

공작가의 사용인이 대답한다.

알트레온은 알았다고 끄덕이며 레티아의 방으로 향했다.

시엘라가 없는 공작가는 상당히 조용했다.

단순히 조용하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다.

알트레온은 그런 사실을 눈치채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어째서 시엘라 아르테르크가 사라졌는데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지 모르겠군.'

레티아를 괴롭히던 유일한 악역이 사라졌다.

마땅히 기뻐해야 할 텐데?

'아니, 레티아가 시엘라를 공작가로 데리고 오라고 한 것 때문인가.'

그 시엘라를 다시 공작가로 데려온다면 사용인들의 고생이 심해질 것이다.

진짜로 돌아온다고 해도 시엘라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처리 방안이 마땅치가 않고.

하지만 그럴 일은 없다.

조금 극단적인 방법이긴 했지만, 아르안이 시엘라를 죽였으니까.

주머니에 들어 있는 시엘라의 목걸이가 거슬린다.

핏자국이 묻어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알트레온이 얼굴을 조금 찌푸렸다.

뭐가 어쨌든 죽은 사람의 유품이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쾌한 걸 봐서는 빠르게 처분해야 할 것 같다.

"안녕, 알트레온."

레티아가 알트레온을 반긴다.

시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기를 바라면서.

"시엘라는 찾지 못했어."

알트레온이 입을 열었다.

레티아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왜? 시엘라는 아직 근처에 있을 거라고 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엘라는 이미 마차를 구해서 아델이라는 마을로 간 뒤였거든."

"그래? 그럼 다행이다."

레티아가 안심한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절대로 레티아에게 시엘라룰 죽였다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

시엘라 자신이 시엘라를 아르테르크 공작가에서 내쫓은 탓에 죽었다고 생각할 테니까.

"다행인 것 치고는 표정이 좋지 않은데?"

알트레온이 묻는다.

아르테르크 공작가 전체가 지금의 레티아와 같이 우울한 분위기다.

레티아가 다행이라고는 말했지만, 여전히 안절부절못하는 게 느껴진다.

무언가 알트레온이 모르는 게 있다.

"사실은... 시엘라의 방에서 발견한 게 있거든."

"발견한 거?"

"일기장."

시엘라의 방에서 발견한 일기장이라면 알트레온이 알고 있는 것이다.

책상에 놓여 있던 시엘라의 일기장을 하녀가 찾았고, 하녀가 가져온 그 일기장을 증거로 삼아 시엘라를 공작가에서 퇴출시킬 수 있었다.

"일기장이라면-"

"우리가 처음에 찾았던 그 일기장은... 아마 날조된 가짜 같아."

레티아의 표정이 점차 어두워진다.

알트레온이라고 별반 다를 것은 없었다.

"무슨 소리야?"

가짜 일기장?

그렇다고 하기에는 시엘라의 행적이 너무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날조되었다는 게 무슨 소리지?

"다른 일기장을 찾았어. 쓰레기장에서 하녀장이 찾았다고 하더라."

레티아가 그렇게 말하며 책상에 놓여 있던 수첩 하나를 집어 들었다.

저게 일기장이라면 알트레온이 봤던 그 일기장과는 다른 일기장이다.

레티아가 집어 든 수첩은 불에 태우려고 한 듯 겉이 그을려져 있었다.

"쓰레기장에서 찾았다고?"

"으응, 글씨체까지 시엘라가 쓴 거랑 완전히 일치해."

"시엘라에게 두 번째 일기장이 있었는지는 몰랐네."

알트레온이 말했다.

여전히 불안하다는 듯 레티아의 눈이 흔들린다.

수첩의 그을려진 부분을 만지며 말을 이어나갔다.

"아마도 태워버리려고 한 것 같아. 시엘라 본인이 태우려고 했던 걸까?"

그을린 수첩 표면에는 어렴풋이 '시엘라' 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이 보였다.

"그거, 내용은 우리가 찾은 거랑 큰 차이가 없지 않아?"

알트레온이 질문을 던졌다.

일기장이 더 있다고 해봐야 같은 사람이 쓴 것이다.

첫번째 일기장이 날조되었다는 것은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그게... 달라. 전혀 달라서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용이 이상해."

레티아가 거의 울먹일 듯이 말한다.

다른 사람에 비해 그녀의 감성이 풍부하기에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슬프게 하지?

알트레온이 의문을 가졌다.

"일기장을 다른 사람이 쓴 것 같다고?"

레티아에게 수첩을 넘겨받는다.

가까이서 보니 상당히 오래 쓴 수첩으로 보인다.

불에 그을려서 더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내부도 까맣게 타 있는 페이지들이 많았다.

마치 불에 태워버리려고 하다가 포기한 듯한 흔적.

시엘라가 자신의 일기장을 태울 이유가 뭐지?

알트레온이 읽을 수 있는 페이지를 찾아 수첩을 넘겼다.

곧이어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나왔다.

"레티아에게 미안하다. 나는 어째서 이런 짓을-"

일기장의 내용은 이랬다.

잘못 읽은 것이 아니다.

일기장에는 시엘라가 레티아에게 사과하려는 듯한 문장이 쓰여 있었다.

알트레온이 예상한 것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정말 미안해. 이젠 괴롭히기 싫어."

정말로 내용이 이상했다.

"시엘라가 이걸 썼다고?"

다른 사람이 쓴 것 같다고 한 이유를 알겠다.

"다른 하녀들도 시엘라가 옛날부터 이 노트에 뭔가 적는걸 본 적이 있데. 노트를 태워 버리려고 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지만."

레티아가 대답했다.

일기장의 내용은 마치 시엘라가 자신이 원치 않은 일을 행했다는 듯이 적혀 있었다.

레티아가 울먹일 만도 했다.

"이제 그만두는게 어떨까? 그만두는게 어떨까? 그만-"

"이건 옳지 않은 일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열된 것이 보였다.

문장의 뒤로 갈수록 글씨체가 알아보기 힘들게 변한다.

노트 구석엔 낙서가 그려져 있기도 하다.

아마도 이 수첩, 일기장은, 시엘라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을 간간히 기록해 놓는 용도가 아니었나 싶다.

초반부의 일기 내용은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중반부에 들어서자 일기장은 찢겨져 있거나 불에 타서 사라지고 없었다.

결국 남은 기록은 비교적 최근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후반부.

일기장의 후반부라고 하면 시엘라가 쫓겨나기 얼마 전이다.

수첩 내용 상단에는 항상 일기를 쓴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그 날짜가 며칠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왜 나는 악역인 걸까. 나는 레티아처럼 착한 역을 맡아선 안 되는 거였나?"

시엘라가 한탄하는 듯한 문장이다.

"어?"

알트레온이 당황한다.

확실히 레티아와 알트레온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시엘라가 악역으로 비춰지고는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시엘라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아니, 못한 것처럼 보였다.

수첩에 적힌 내용이 이상하다.

시엘라는 자신이 악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사과가 쓰여 있는 것을 보아서는 죄책감까지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레티아도 그렇고, 다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공작가를 나간다면 멀리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아델로 가야지. 좋은 곳이랬는데."

일기가 적힌 수첩을 전부 살펴본 건 아니다.

하지만 무언가 많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첫번째 일기장은 뭐였던 거지?"

정말로 날조된 일기장이었나?

하지만 어째서?

진짜 그런 거라면 누가 날조한 거지?

"시엘라 성격을 생각해 봐. 중요한 내용이 적힌 일기장을 남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놓을 리가 없는데."

시엘라는 멍청하지 않았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만한 것이 있다면 태워서라도 없애버리려 했을 것이다.

지금 읽고 있는 이 일기장처럼.

",,,누군가에게 행동을 강요받았던 건가?"

알트레온이 중얼거렸다.

일기장에는 시엘라의 세세한 생각들이 적혀 있었다.

평소 성격과의 괴리감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

마치 억지로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한 것만 같다.

"이젠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시엘라를 데리고 와서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레티아가 우울한 듯이 고개를 숙였다.

시엘라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한 이유는 그랬다.

일기장의 내용이 진짜라면, 알트레온 자신이 엄청나게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는 소리가 된다.

시엘라가 악역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생겼다.

"...그래도 시엘라가 무사히 다른 마을로 간 것 같으니 다행이다. 분명 마을 이름이 아델이라고 했었지?"

일기장에 쓰여 있던 아델이라는 마을은 레티아 역시 알고 있는 곳이다.

평화롭다고 소문이 난 동네니까.

어쩌면 시엘라는 자신만의 조용한 평화를 갈구한 것이 아닐까?

결국 자신이 원하던 곳으로, 아델이란 마을로 갔다고 하니 다행이다.

"맞아."

알트레온에겐 전혀 다행이 아니었다.

아르안이 보낸 기사들이 시엘라를 죽여 버렸다.

그리고 산적의 습격 따위로 위장됬다.

알트레온은 내심 시엘라가 죄값을 치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엘라에게 죄가 없었던 것이라면 어떻지?

일기장을 보고 난 이후로 새로운 의혹이 알트레온의 마음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만약 시엘라에겐 더 이상 레티아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다면?

그저 다른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려고 했을 뿐인 아이를 죽여버린 것이 된다.

주머니 안에 있는 차가운 금속이 만져진다.

목걸이는 마치 주인이 죽었다는 것을 알기라도 한 듯,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핏자국이 알트레온의 머릿속에 그려진다.

목걸이에 묻어 있던 핏자국.

"알트레온,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시엘라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레티아가 활짝 웃으며 묻는다.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다.

알트레온은 레티의 기대를 깨고 싶지 않았다.

"응.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머뭇거리며 대답한다.

"그렇구나."

레티아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곧이어 알트레온에게 양심의 가책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시엘라와 레티아, 양쪽 모두에 대해서.

제 1 황자라는 지위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분명한 것은 어떻게든 위기는 넘겼다는 사실이다.

이제부터는 레티아가 더 이상 시엘라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니 지금부터 알트레온이 해야 할 일은...

"...그런데 주머니에 그건 뭐야? 목걸이?"

레티아가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주머니에 그건 뭐야? 목걸이?"

레티아가 질문을 던졌다.

알트레온이 당황한다.

실수로 시엘라의 목걸이를 노출시켰고, 레티아가 봐 버렸다.

'보여줘도 상관은 없겠지.'

시엘라는 평소에 목걸이를 차고 다닌 적이 없었다.

어째서 도망가는 와중에 목걸이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는 몰라도, 레티아가 이 목걸이의 정체를 파악할 가능성은 낮다.

이대로 목걸이를 감춰서 수상하게 보이는 것은 싫다.

알트레온은 레티아에게 신뢰를 잃고 싶지는 않았다.

'문제는 핏자국인데.'

물로 씻어두기라도 했어야 했던가.

"그냥 목걸이야."

-툭.

알트레온이 주저하다가 목걸이를 꺼내 놓는다.

시엘라가 가지고 있었던 목걸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핏자국이 묻어 있다 해도 적당히 둘러대면 그만이다.

그러나 알트레온의 생각처럼 일이 흘러가진 않았다.

"어,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목걸이의 생김새를 살펴보며 말했다.

레티아가 알고 있는 목걸이였다.

"뭔지 알아?"

"응. 어머니가 나한테 주셨던 거야. 오랜만에 보네."

"어...'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

목걸이가 레티아의 것이었던가?

"이거 공작가에서 찾은 거야?"

레티아가 목걸이를 더 자세히 살피며 묻는다.

목걸이에 미세하게 새겨져 있는 어머니의 성함까지 완벽히 일치한다.

"아, 아니."

"그럼 어디서?"

"아르안이 바깥에서 주웠다면서 가져왔어."

레티아에게는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진실만을 말했다.

세세한 것들을 제외했을 뿐.

아르안이 시엘라의 목걸이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은 확실하니까.

"그래? 나중에 아르안한테 물어봐야겠네."

레티아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리고 말을 이어나갔다.

"나는 시엘라가 가져간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야?"

알트레온이 되묻는다.

조금 전엔 어머니에게 받은 목걸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물건인지 모르겠다.

"어머니께서 목걸이를 주실 때 조금... 일을 불평등하게 처리하셨거든. 그래서 시엘라가 목걸이를 가져가도록 내버려 뒀었어."

"목걸이를 받았을 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원래 이 목걸이를 가지고 있던 건 시엘라였거든."

레티아가 작게 한숨을 내뱉는다.

레티아는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게 시엘라가 자신을 싫어하게 된 계기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엘라의 일기장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지만.

"내가 처음 아르테르크 공작가로 들어왔을 때, 어머니께서 시엘라에게 주었던 목걸이를 회수해서 나한테 주셨어."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에게 목걸이를 받았던 것은 시엘라였다.

중요한 의미가 담긴 목걸이었던지 어머니는 시엘라의 목걸이를 반 강제로 빼앗아 레티아에게 넘겼다.

-위험한 순간에도 이 목걸이가 널 보호해 줄 거란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레티아의 기억 속의 어머니는 다정하셨지만, 시엘라에게는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시엘라가 가지고 있던 거였는데, 어머니께선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 봐."

레티아는 그때 자신이 시엘라의 것을 빼앗았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다.

"시엘라가 다시 가져가도록 내버려 뒀는데. 어쩌다가 아르안이 이 목걸이를 주워 왔는지 모르겠네."

시엘라는 이 목걸이를 마차를 탈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목걸이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걸까?

어째선지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이 붉은색 자국은...?"

레티아의 기억 속 목걸이는 이렇게 더럽지도 않았고, 붉은색 자국이 붙어 있지도 않았다.

붉은 핏자국은 아르안이 시엘라를 살해했다는 증거였지만, 레티아가 그것을 알 길은 전혀 없었다.

"아르안이 주워 오다가 더러워졌던 것 같아."

죄책감.

상당한 죄악감이 몸을 타고 오르는 기분이다.

"그럼... 목걸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르안한테 물어볼게. 나중에 시엘라에게 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가지고 가다가 떨어트린 거려나. 신기한 우연이네."

레티아가 아르안이 목걸이를 주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추리해 본다.

더 이상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를 진전시켜서는 안 된다.

"그보다, 일기장은 어떻게 해야 하지?"

알트레온이 황급히 화제를 돌린다.

"일기장은... 우선 이 일에 대해 아는 사람들에겐 전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시엘라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

시엘라가 공작가에서 쫓겨난 가장 큰 이유는 명예의 상실이다.

레티아를 쫓아내려고 했던 일 때문에 모두에게서 신뢰를 잃었다.

아르테르크 공작, 시엘라의 아버지는 더 이상 시엘라를 믿지 않았다.

"아버지한테 일기장을 보여 드려야 하려나? 시엘라가 이상하게 행동했던 건 다른 누군가의 소행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알트레온은 자신만의 생각에 집중하느라 대답하지 못했다.

어찌 되었든 레티아가 시엘라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는 안 된다.

아르안에게 기사들 입막음을 시키기는 했지만, 이대로는 불안하다.

"알트레온?"

레티아의 말에 알트레온이 다시 정신을 차린다.

시엘라의 죽음을 들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너무 몰입되어 있었다.

"응."

"일기장은 그렇다 쳐도...시엘라를 다시 찾을 수는 있을까?"

명예 회복이고 뭐고, 이미 없어진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렇기에 레티아는 시엘라를 찾으려 했다.

허나 죽은 사람에게 명예는 더더욱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트레온은 알고 있었다.

"찾아보도록 할게. 걱정하지 말고 있어."

물론 찾아봐야 의미는 없다.

'기사들 입막음부터 확실히 하러 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한다.

시엘라가 죽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황실 기사단은 규모가 큰 편이다.

주 임무는 순찰, 황궁 보호 등.

"아..."

그러나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사람을 죽였다.

기사단의 일원, '덴'이 손을 조금 떨고 있었다.

아직도 그때의 감각이 손을 떠나지 않는다.

"제기랄."

미리 짜여진 대본대로 행동했을 뿐이다.

마차를 습격하고, 대상을 살해한다.

대상은 18세 정도로 추정되는 소녀.

이름은 시엘라.

타고 가던 마차를 습격해서까지 처리할 만한 상대로 생각되지는 않았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기사단장에게 물어보았다.

내 앞에는 마법에 묶인 채로 떨고 있는 소녀가 있었다.

그 여린 목에 칼을 겨누고 죽일 준비를 했다.

제 2 황자의 명령이라지만 사람을 죽이는 건 역시 거부감이 심하다..

"아무리 아르안 황자님의 명이라 해도-"

불만을 내비쳤다.

"덴, 지금 황실 기사가 황자님의 명령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건가?"

하지만 권력은 절대적이다.

아무리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이라도 따라야만 한다.

그토록 존경하던 단장님이었지만, 황실 기사단의 본문을 잊지 말라며 사람을 죽이도록 명령했다.

동정심이 생겼다.

검을 들고 망설였다.

"죽기 싫어요."

소녀가 흘린 눈물이 방울진 채로 흙바닥에 떨어졌다.

단장님의 표정을 살폈지만, 역시 명령을 철회하시지는 않았다.

다른 사람이 죽였으면 했다.

하지만 단장님은 아직까지 아무도 죽이지 않았던 나에게 임무를 맡겼다.

필요할 경우, 사람을 죽일 줄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고민 끝에 검을 내리꽂을 준비를 했다.

"-사, 살려주세요. 죽이지 말아주세요, 제발."

소녀가 죽음을 직감한 듯 애절하게 빌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말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애초에 이곳에 있는 모두가 그녀를 죽이기 위해 온 것이었으니까.

"덴! 어서 처리해라. 여기서 너에게 이 일을 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느냐!"

단장님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검을 들어 올렸다.

누구에게 죄송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단장님에게?

혹은 내가 죽여야 하는 이 소녀에게 미안했던 걸까?

-푸욱.

장검이 소녀의 몸을 깊숙하게 뚫고 들어갔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다.

소녀가 힘없이 흙바닥에 쓰러진다.

천천히 빼낸 검에는 피가 묻어나온다.

제 2 황자의 명령으로 독이 묻은 검을 사용했다.

대상을 천천히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도록 만들어야 했으니 찌르는 건 한 번으로 그쳤다.

기왕이면 더 편하게 죽여 주고 싶었지만, 황가의 명령이다.

독이 든 검을 사용하게 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파..."

희미하게 신음을 낸 것을 마지막으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소녀는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다.

흘러나온 피가 계속해서 주변 땅으로 번진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멍해졌다.

"-그 정도면 됐다."

단장님이 수고했다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살면서 한 번 정도는 겪어봐야 할 일이다. 기사단은 황실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인 만큼,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가 가지 않았다.

처음에 생각했던 황실 기사단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제 2 황자는 아직 어리고, 판단력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런 그의 명령에 따라 사람을 죽였다.

손이 떨린다.

살인의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명예가 아닌 절망.

조금 전, 제 1 황자가 기사단을 찾아와 말했다.

"안타깝게도 시엘라 아르테르크에게는 죄가 없었다."

'죄가 없었다?'

"자그마한 오해가 있었다."

별 것 아니라는 듯 제 1 황자가 말을 이어나갔다.

시엘라는 이미 죽었다.

내 손으로 죽였다.

제발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하던 소녀를 살해했다.

"내 동생 아르안이 내린 성급한 명령을 철회하마. 이 시간 이후로, 너희들이 마차를 습격한 건에 대하여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을 것을 명한다."

제 1 황자는 제 2 황자가 내렸던 명령을 철회했다.

황실 기사단이 사람을 죽인 일을 대외적으로 없던 일로 한다.

황가의 권한은 막대하다.

사람 하나 죽인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숨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다.

사람을 죽일 때의 감각이 손끝에 남아 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고? 내가?'

그냥 죽인 것도 아니다.

검에 묻어 있던 특수한 독으로 죽기 전까지 최대한 고통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소녀가 매고 있었던 목걸이를 빼내어 증거물로 제출했다.

산적의 소행으로 보이도록 마무리 지었으니, 장례를 치뤄 주는 일도 없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원한다면 황가 권한으로 휴가를 줄 테니 쉬다 오도록 해라."

알트레온이 그 말을 끝으로 기사단 본부를 나섰다.

제 1 황자는 기사들의 입막음이 목적이었던 것이지, 위로나 사과를 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다.

'젠장.'

무고한 소녀를 죽였다.

검으로, 무자비하게.

살인.

그 두 글자가 덴의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았다.

덴은 심성이 착한 편에 속하는 사람이다.

최소한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는 착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기사단 내부의 분위기도 조금 가라앉아 있었다.

황가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지만, 그들 역시 사람이었으니까.

기분이 나쁜 건 덴 뿐만이 아니다.

마차를 습격할 때 있었던 인원들은 대부분 착잡한 마음을 가진 상태였다.

-황자님께서 사살 명령을 내리셨다.

기사단장은 그렇게 말했다.

황자의 명령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따지지 않는다.

황실 기사단은 원래 그런 존재이니까.

기사단의 일원일 뿐인 덴 자신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대체 내가 사람을 죽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지?'

분명 자신이 검을 들지 않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소녀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나 덴은 죄책감을 쉽사리 떨쳐낼 수 없었다.

검에 묻은 맹독은 찔린 사람을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만든다.

황가의 복수를 위해서만 쓰는 독.

그 당시의 덴은 믿고 있었다.

이 소녀는 분명 죽임당할만한 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그렇지 않다면 마차를 미리 매수해 둘 필요도, 황실 기사단이 암살이나 다름없는 짓을 할 이유는 없을 테니까.

죽이지 말아 달라고 하는 소녀의 목소리가 여전히 머릿속을 파고든다.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

하지만 입막음으로 인해 사과도 하지 못한다.

아니, 애초에 사과를 하기에는 당사자를 직접 죽이고 온 터다.

'황실 기사단은 원래 이런 존재였나?'

황실 기사단에 들어온 이유를 모르겠다.

무고한 사람을 죽여놓고 책임 회피나 하려고 황실 기사 작위를 받은게 아니다.

어렸을 때에는 참으로 멋져 보이던 곳이었는데.

"잠깐 쉬다가 와라."

기사단장이 덴에게 말을 꺼냈다.

"단장님."

"고향이든 어디든 갔다가 와."

"제가 죄 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녀를 죽이라는 것은 황가의 명령이었다. 내 명령이기도 했지."

무덤덤하게 대답한다.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황자님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는데..."

덴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나온다.

그들에게 죽일 대상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로 인해서 사람을 죽여버린 건 자신이다.

기사단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역시 제 2 황자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명령에 불복하지 못했을 뿐.

"제가 죽인 건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를 살해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

"평민이다."

"그런 것 치고는 죽이는 것에 과할 정도로 공을 들이셨지 않나요."

산적이 습격한 것처럼 위장한다.

누군가 시체를 발견하더라도 황실은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인 시민을 죽일 때는 그렇게까지 일이 복잡하게 진행되진 않는다.

"...어느 공작가의 공녀였다."

기사단장이 고민하다 말했다.

"'시엘라'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가문명이라도 제대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실 이름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다.

그건 일생 처음의 살인이었으니까.

"아르테르크 가의 버려진 자식이다. 이미 공녀 자리를 박탈당했으니 공녀라고 할 것도 없지. 지금은 또 모르겠군. 알트레온 황자님께서 오해가 있었다고 했으니."

"그렇습니까."

자신이 누구를 죽였는지는 알 수 있게 되었다.

"덴, 한 달만 쉬다 돌아와라. 고향이든 어디든 가서 생각을 정리하고 와."

기사단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덴이 수긍하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자신이 죽인 소녀에 대하여 최소한의 속죄를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그러니 소녀의 가족들을 찾아가야 한다.

아르테르크 가문은 유명한 곳이다.

제국의 가장 큰 세력을 가진 가문들 중 하나이고, 황제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곳.

듣기로는 황가의 일원들과도 매일 만난다고 한다.

그런 가문에서 쫓겨난 공녀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솔직히 내가 누굴 죽였는지는 자세히 알고 싶지 않다.'

자신이 죽인 대상에 대해 더 깊게 파고들어 봐야 죄책감만 늘어날 뿐이다.

하지만 이래야지만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시엘라는 마차를 타고 도망가고 있었다.

명령의 내용은 '황가에 원한을 사고 도망치려 하는 대상을 죽여라'.

기사단 측에서 나서지만 않았더라도 시엘라는 성공적으로 도망쳤겠지.

'시엘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

덴이 주먹을 강하게 쥔다.

마음이 편해지지를 않는다.

공작가의 문을 두드렸다.

"그래서,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이곳은 공작가의 응접실.

하인에게 차를 내오도록 시킨 레티아가 댄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시엘라 공녀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덴이 입을 열었다.

여기 있는 레티아라는 아이는 시엘라의 가족으로 보인다.

이렇게 빨리 만날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그러시군요.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황실 기사라고 소개하셨는데... 아르안이나 알트레온이 뭔가 시켰던 건가요?"

레티아가 먼저 질문을 던졌다.

황실 기사인 덴이라면 아르안이나 알트레온이 한 일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하에.

레티아의 질문을 들은 덴은 내심 놀라고 있었다.

'황자님들의 이름을 저렇게 간단히 부른다고? 존칭 하나 붙이지 않고?'

보기보다 더 지위가 높은 걸까?

그럴 수는 없다.

분명 아르테르크 공작의 딸이라고 그랬다.

일개 공녀가 황가를 서슴없이 대하는 건 덴의 눈에는 상당히 이상해 보였다.

"그러니까, 저는 아르안 황자님의 명으로 시엘라 공녀를..."

시엘라 공녀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하지만 차마 문장을 완성시킬 수가 없었다.

"아! 역시 시엘라를 수색하셨던 분이신가 보군요."

레티아가 반갑다는 듯이 말한다.

"네?"

"아마도 아르안이 시켰나 보죠? 그래서 그 목걸이가 저한테까지 온 거고."

목걸이?

설마 아르안에게 가져다 바쳤던 그 목걸이를 말하는 건가?

죽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기에 소녀의 목에 걸려 있던 목걸이를 빼냈다.

"어쨌든, 시엘라를 어떻게 찾으셨나요?"

레티아가 열성적인 태도로 묻는다.

알트레온이 제공한 정보는 어딘가 나사가 하나씩 빠진 듯한 느낌이었다.

알트레온의 태도에서 오는 위화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이상했다.

아르안이 시엘라의 목걸이를 주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상하다.

시엘라의 성격상,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목걸이를 아무 곳에서 흘리고 다닐 이유가 없었다.

때맞춰 알트레온이 목걸이를 들고 있었던 것도 이상하다.

그래서 아르안이 시엘라와 만났던 것은 아닌가 생각했다.

아르안의 명령을 받아 행동했다는 황실 기사와 만났다.

공작가에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좋은 일이다.

"시엘라가 그 마을에는 잘 도착헀나요? 마을 이름이 아델이었던가."

시엘라의 일기장에는 아델이라는 곳에 가고 싶다고 쓰여 있었다.

도망친다면 그곳으로 갈 거라고 쓰여 있었다.

평화로운 마을에 가서 조용히 사는 것이 시엘라가 가졌던 로망이었던 것 같다.

"그게 시엘라 공녀님은..."

덴은 자신이 시엘라를 죽였다고 고백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가족임이 분명한 레티아가 시엘라의 죽음을 모르고 있었다.

"시엘라가 아델이 평화로운 곳이라고 그랬고, 엄청나게 가고 싶어했던 것 같았는데. 나중에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젠장.'

레티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마차에 타고 있던 건 그냥 평화로운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할 뿐인 평범한 아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였다.

평화로운 곳에 가고 싶어할 뿐인 소녀.

그런데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별 건 없다.

살려달라는 소녀의 외침을 무시한 채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였을 뿐.

델의 죄책감이 더욱 더 늘어났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함구령이 내려진 거라면 무시해도 괜찮아요. 알트레온이나 아르안에게 말해두면 될 일이니까."

덴의 태도를 이상하게 여겼던 모양이다.

함구령이 내려져 있긴 했다.

제 1 황자가 직접 와서 시엘라를 죽인 일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다.

제 2 황자라고 다를 건 없었다.

"아르안도 당신과 함께 있었나요? 목걸이를 주었다고 했는데, 그게 시엘라 거였거든요."

레티아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본다.

"명령을 내리셨을 뿐, 저희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레티아가 납득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

시엘라의 목걸이를 어떻게 얻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

분명 알트레온은 아르안이 목걸이를 주워 온 거라고 했는데, 기사단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니라면 아르안이 목걸이를 주울만한 상황이 짐작이 가지 않는다.

알트레온이 잘못 알려 준 걸까?

덴이 레티아에게 시엘라의 죽음을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시엘라가 타고 가던 마차를 멈추고, 시엘라를 죽여버렸다.

황자들이 유일한 목격자인 기사들의 입막음을 중요시한 이유가 있었다.

어째선지 황자들이 레티아를 편애하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자신들이 레티아에게 가족인 시엘라를 '실수로', '사소한 오해로' 죽였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시엘라 공녀님은..."

자신이 시엘라를 죽였다고 말하려 했지만, 또 실패했다.

상당한 죄악감이 마음을 짓누른다.

레티아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차마 자신이 시엘라 공녀를 죽였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

"죄송합니다."

덴이 힘겹게 입을 떼어 사과한다.

"네?"

레티아가 당혹스러운 눈길로 덴을 쳐다본다.

"시엘라 공녀님은 죽었습니다."

"시엘라 공녀님은 죽었습니다."

덴이 말했다.

"그게 무슨..."

시엘라가 죽었다?

그럴 리가 없다.

알트레온은 분명 시엘라가 다른 마을로 잘 도망쳐 갔다고 말했다.

"아르안 황자님의 명을 받아, 제가 직접 죽였습니다."

"그, 그럴 리가요."

레티아가 당황하며 대답한다.

연속해서 충격적인 말을 듣고 있다.

침묵하고 있는 덴을 바라보았다.

눈앞에 있는 기사가 시엘라를 죽였다?

곧바로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이야기였다.

"죄송합니다."

덴이 사과한다.

덴의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시엘라가 죽어가는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잊으려고 해도 그 살려달라 말하는 목소리가 잊혀지지를 않는다.

"정말로 시엘라가 죽었...?"

덴이 고개를 푹 숙이며 수긍한다.

시엘라가 죽었다.

레티아는 시엘라가 죽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간 저질러 온 짓이 있다고는 해도, 시엘라가 죽음으로 갚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

시엘라를 공작가에서 쫓아내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었다.

시엘라가 사라졌다.

자신의 바람이 가득 담겨 있는 일기장을 두고서.

-툭.

책상 위에 놓인 목걸이가 만져진다.

목걸이에 있는 붉은색 자국은 설마...

'핏자국...?'

레티아의 숨이 막혀온다.

"아르안이 시킨 거라고 하셨던가요?"

레티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영문 모를 공포감이 몸을 지배한다.

"그렇습니다. 시엘라 아가씨를 죽이라는 것은 제 2 황자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알트레온이 가지고 온 목걸이.

피가 묻은 시엘라의 목걸이를 아르안이 주웠다고 했다.

그리고 아르안은 황실 기사단에 명령을 내렸다.

황실 기사단이 시엘라를 죽였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

아르안이 시엘라를 죽였다.

알트레온은 어째서 그 사실을 숨긴 거지?

레티아의 생각이 점차 복잡하게 엮여들어간다.

"황자님들께선 기사단 전체에 함구령을 내렸습니다만, 어차피 저는 오늘부로 기사직을 내려놓을 생각이니 상관없습니다. 제가 본 것을 전부 사실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덴이 그렇게 말하며 숨을 가다듬는다.

자신이 소녀를 죽였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떠올려야 한다.

-죽기 싫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소녀의 표정이 생각난다.

자신이 죽여버린 소녀.

시엘라 아르테르크.

억울하게 죽기 싫었을 것이다.

황자가 와서 오해가 있었다고 한 것을 보면, 분명 억울하게 죽임당한 것일 텐데.

덴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레티아에게 설명했다.

명령이 떨어졌을 때의 기사단의 상황부터 시작해, 시엘라를 마차에서 끌어내려 죽인 일까지.

"기사단장님의 명으로 제가 시엘라 공녀님을 죽였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목걸이는..."

"그 목걸이는 저희가 아르안 황자님꼐 증거물로 가져다 바친 것이군요. 처음엔 그 목걸이를 가지고 계시기에 시엘라 공녀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실 줄 알았습니다만... 아마 황자님들께서 레티아 공녀님께 이 일을 숨기고 싶었던 모양이군요."

실감이 나지 않는다.

레티아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멍하니 목걸이를 바라본다.

시엘라가 죽은 것이 확실했다.

어머니가 주신 목걸이가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 믿었던 걸까?

하지만 아무것도 시엘라를 보호해 주지 못했다.

"제가 전부 말씀드렸으니... 시엘라 공녀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련지 묻고 싶습니다."

덴은 자신이 누구를 죽였는지 제대로 알고자 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성격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덴은 레티아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시엘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관해 물었다.

"아..."

그러나 레티아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공작가에서 보아왔던 시엘라의 모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다.

인제 와서 생각해 보자면, 시엘라의 행동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구석이 많았다.

시엘라는 자신을 괴롭히면서도 가끔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공작가의 사용인들에게는 무례하게 굴지 않았다.

그저 레티아만을 괴롭혀야 한다는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내가 시엘라를 죽인 거야, 내가 섣부르게 시엘라를 공작가에서 내쫓으려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레티아가 참담한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질책한다.

시엘라를 죽이라고 명령한 건 레티아가 아닌 아르안이지만 레티아 자신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엘라에 대하여 자신이 조금 더 알아보려고, 대화하려고 노력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시엘라 공녀가 공작가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시엘라 아가씨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려주십시오."

덴이 슬퍼 보이는 얼굴로 말한다.

아르안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덴은 자기 자신이 마주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멋모르고 사람을 죽인 대가는 크다.

자신이 조금 더 현명했더라면, 힘과 지식이 있었더라면 시엘라를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까?

덴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시엘라는-"

레티아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자신이 시엘라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시엘라가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도 설명했다.

설명을 마친 레티아는 앞에 있던 시엘라의 일기장을 보았다.

그리고 조금 망설이다가, 덴에게 내밀었다.

"이건...?

덴이 일기장을 받아들며 물었다.

"시엘라의 일기장이에요."

"탄 흔적이 남아 있군요."

"아마도 시엘라가 일기장을 태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덴이 불에 그을려 있는 수첩을 펼친다.

상당한 과거에 쓰인 듯한 문장이 보인다.

"미안해. 레티아, 괴롭혀서 미안. 나도 그만두고 싶은데-"

문장의 뒷부분은 불에 타서 보이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시엘라가 레티아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

"레티아도 그렇고, 다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공작가를 나간다면 멀리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아델로 가야지. 좋은 곳이랬는데."

덴은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을 보고 몸이 굳었다.

처음에 레티아가 시엘라가 마을로 잘 갔냐고 물었던 이유를 찾았다.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듯 적혀 있는 문장.

마차를 타고 있던 시엘라는 아델이라는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부는 출발 전에 매수되어 있었다.

애초에 시엘라가 탄 마차는 아델에 도착할 리가 없었다.

'대체 내가 누굴 죽인 거지?'

덴의 죄책감이 더욱 더 커졌다.

일기장에는 그저 평범한 생활을 갈구하는 듯한 시엘라의 모습이 녹아 들어가 있었다.

시엘라는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하는 소녀였다.

평화로운 마을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조용하게 살고 싶어하는 모습이 글에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런 미래는 찾아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덴 자신이 망가트려 버렸으니까.

"시엘라..."

레티아가 끝내 울음을 터트린다.

나중에 다시 만날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시엘라는 공작가에서 버려졌고, 아르안에게 죽임당하는 시엘라를 막아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르안과 알트레온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하지만 공작가에서 시엘라를 쫓아내기로 한 건 자신이다.

레티아의 자책이 점차 심해진다.

알트레온이 황궁 밖으로 걸음을 옮긴다.

제 1 황자로써 해야 할 업무들은 전부 처리했다.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아르테르크 공작가로 돌아가 봐야 한다.

레티아에게 무언가 일이 터졌을 것만 같은 불길한 기분이 든다.

역시 시엘라의 일기장이 문제였다.

그게 아니었더라면 시엘라가 조용히 죽는 것으로 끝났을 텐데.

"...젠장맞을. 아르안 그 자식만 아니었어도."

시엘라가 죽을 것까지는 없었다.

아르안은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상대를 죽여 버리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

나중에 커서 위험한 놈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르안 같은 인간이 왕이 된다면 분명 폭군이겠지.

알트레온은 아르안처럼 과격하게 사람을 다룰 생각은 없었다.

시엘라가 죽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죄책감보다, 레티아를 향한 마음이 더 컸다.

그녀를 걱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맹목적인 신념이 작용하고 있었다.

어서 가서 레티아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을 보고 싶다.

"화, 황자님."

"뭐냐?"

하인 하나가 그를 불러세운다.

"그것이... 데르네아 가문 측에서 연락을 해 왔습니다."

"데르네아? 무엇 때문에?"

데르네아라 하면 귀족 가문들 사이에서도 가장 평판이 좋지 않은 곳이다.

황가하고도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 황가와 데르네아 가문의 연결점도 줄었다.

한동안은 아무 접점도 보이지 않았는데.

"2년 뒤에 있을 황태자 책봉식에 관해 묻고 싶다고 하시던데..."

"나중에 듣지."

알트레온이 하인의 말을 흘려 듣는다.

네르데아고 데르네아고 그런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오직 레티아의 상태.

레티아가 시엘라의 죽음을 눈치챌까 싶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시엘라가 죽은 것이 전부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할 게 뻔했다.

그런 일만큼은 일어나선 안 된다.

알트레온은 레티아를 항상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맹세했다.

레티아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곧바로 마차를 타고 아르테르크 공작가로 향한다.

황실 기사단의 입막음도 확실히 해 뒀다.

시엘라의 죽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시엘라를 죽였을 때 같이 있었던 마부는 아르안이 알아서 처리했을 것이다.

걱정할 것 하나 없다.

알트레온이 그렇게 자신을 안심시키며 레티아의 방문 앞에 선다.

"레티아, 들어갈께."

노크와 함께 레티아의 방 안으로 들어섰다.

"알트레온."

방 안에서는 레티아가 울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레티아가 손 위에 펼쳐놓고 있는 것은 시엘라의 일기장.

그리고, 목걸이.

"왜 시엘라를 죽였던 거야?"

레티아의 입에서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흘러나온다.

"어째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전부 너를 위해서라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알트레온은 쉬이 입을 열 수 없었다.

레티아가 시엘라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 버렸다.

대체 어디에서 정보가 새어 나간 거지?

아르안? 기사단은 아닐 테고, 대체 어디서?

"배신자."

실망감에 가득 찬 어투로, 레티아가 말했다.

'아르안, 그 개자식 때문에.'

알트레온이 생각했다.

레티아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어째서인지 레티아는 시엘라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르안이 황실 기사단을 보내어 시엘라를 죽이지만 않았더라도.

레티아가 원하는 대로 시엘라를 공작가에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자신은 실패했다.

"나가 줘, 알트레온."

레티아가 자신을 내쳤다.

알트레온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레티아, 나는 네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해서..."

애초에 시엘라를 죽인 건 자신이 아닌 아르안이다.

제 2 황자라는 직위를 가지고 멋대로 행한 건 아르안이지, 절대로 자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질책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젠장."

문제는 자신이 레티아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데, 전부 레티아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해서 한 일이다.

그렇게 알트레온이 공작가를 나서려던 순간,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푸른색 머리칼이라 하면 그 녀석밖에 없다.

"...레한 실레이르?"

말하자면 레한은 알트레온과 레티아를 두고 경쟁하는 사이였다.

최소한 알트레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네가 공작가에 무슨 용건이지?"

알트레온이 말한다.

"알트레온, 여긴 아르테르크 공작가지 황가가 아니다. 너에게 대답할 의무는 없어."

레한이 맞받아친다.

제 1 황자의 지위로는 실레이르 공작가의 후손에게 명령할 권리가 없다.

"레티아를 만나러 온 거라면 관둬라."

"왜지?"

"지금 화가 난 상태니까."

알트레온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지만, 레한에게 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싶진 않았다.

"화가 났다고? 네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레한은 생각보다 차분하게 대답했다.

반응이 싱겁다.

항상 레티아와 관련된 일이 생기면 과민 반응을 하고는 했었는데.

알트레온이 레한의 반응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별 건 없다. 전부 아르안이 벌인 짓 때문이다."

알트레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을 이어나간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아르안의 잘못이다.

레티아가 시엘라의 죽음을 알게 된 건 누구 탓인지 몰라도,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아르안이 한 것이다.

아르안이 시엘라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귀찮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알고 싶나?"

알트레온이 묻는다.

레한은 별 반응을 하지 않았다.

역시 무언가 이상하다.

옛날의 레한이라면 레티아와 관련된 것들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별 관심이 없다는 듯한 태도다.

'뭐, 레티아에 대한 마음을 버린 거라면 나야 좋지만.'

알트레온이 생각했다.

"어차피 가서 물어보면 될 텐데, 굳이 알트레온 너에게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레한이 시원찮은 태도로 반응한다.

"그래, 내가 특별히 말해 주지."

레한이 레티아에게 가서 설명을 들엇다간,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 대충 납득하도록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설명하자.

"시엘라 아르테르크는 죽었다. 아, 쫓겨난 상태라 아르테르크라는 성을 붙일 필요도 없으려나."

"무슨 소리지?"

레한이 차갑게 되묻는다.

"두 번 말해 줘야 하는 건가? 시엘라 아르테르크는 죽었다."

알트레온이 한심하다는 투로 말했다.

별것 아닌 일일 텐데, 레한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다.

방금 전 레티아의 소식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던 것과는 딴판이다.

"...시엘라가 죽었다고?"

"그래, 결론적으로 보자면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지만, 그렇다."

"자세히 설명해라."

레한이 분노에 찬 투로 묻는다.

알트레온이 레한이 분노하는 것에 당황한다.

레한은 아마도 자신이 시엘라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미 죽은 사람을 찾아오라고 시켰으니, 화가 날 만도 했다.

"아르안이 황실 기사단을 보내 시엘라를 죽였다. 레티아가 너에게도 시엘라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겠지만, 이미 시엘라를 찾기에는 늦었다."

알트레온이 말을 이었다.

"아르안이 시엘라를 마차에서 죽였다고 그랬다. 한적한 숲속이라 다른 목격자는 없었고... 나도 아르안이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알트레온이 변명한다.

변명해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어쩐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만 같은 기분에, 레한이 알트레온을 밀치고 레티아가 있는 방 쪽으로 나아갔다.

"야!"

밀쳐진 알트레온이 소리치지만 무시한다.

황족에 대한 무례?

적어도 지금만큼은 그런 예의를 차릴 때가 아니다.

시엘라가 죽었다.

어째서?

시엘라와 나눴던 대화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다시는 아르테르크 가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요.'

설마.

-'원하신다면 어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죽을 테니까-'

시엘라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손을 잡고 놔주지 말았어야 했다.

레한이 레티아의 방 안으로 들어왔다.

"레한? 어서 와."

레티아가 힘없는 목소리로 레한을 반긴다.

시엘라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아르안이 고의적으로 죽였다.

거기에 더해 알트레온이 레티아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충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르안이 시엘라를 죽였다고 들었다."

레한이 애써 침착하게 말한다.

레티아가 책상에 올려져 있던 목걸이를 만진다.

목걸이에 묻은 핏자국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

"응, 아르안이 시엘라의 목걸이를 받아왔어."

레티아가 조금 울먹이며 말한다.

목걸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레한에게는 아직 시엘라의 진짜 일기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일기장이야."

레티아가 일기장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는다.

"일기장이라면 나 역시 봤을 텐데?"

레한이 의문을 가진다.

시엘라의 일기장이라면 이미 읽었다.

"다른 거야.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은 아마도 가짜이거나 날조된 일기장 같아. 하녀장이 시엘라가 버리려고 했던 걸 찾아냈어."

레티아가 일기장을 레한에게 내민다.

"가짜...?"

레한이 일기장을 펼친다.

대부분이 불에 그슬려 있는 수첩이다.

자신이 봤던 일기장에는 시엘라가 레티아에게 행한 악행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일기장은 무언가 다른 건가?

달랐다.

이전에 보았던 일기장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시엘라가 쓴 게 확실해?"

"확실해."

글씨체가 정확히 일치했다.

시엘라가 가끔씩 수첩에 일기를 적는 것을 봤다는 증인도 있었다.

그렇다면 분명해졌다.

시엘라는 죄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시엘라와 대화했을 때가 떠오른다.

시엘라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지?

-그, 저 혼자 죽으면 피해 입는 사람 없이 깔끔할 테니까...

-절 그냥 보내주시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레티아는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테니까 안심하세요.

시엘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시엘라는 후회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디로든 떠나버리고 싶은 것 같았다.

-레티아에게 미안하다고만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엘라는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지하고 있었다.

일기장은 자신이 레티아를 괴롭힌 것에 대한 후회로 도배되어 있었다.

시엘라가 공작가에 미련이 없는 듯이 떠났을 때부터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때 시엘라를 가지 못하도록 잡았어야 했다.

놔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놓아주세요.

하지만 붙잡을 수 없었다.

시엘라는 자신이 나아갈 길을 알고 있었던 것만 같았다.

설령 그 길의 끝이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시엘라 자신이 선택한 일이라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시엘라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

그 대신 아르안이 시엘라를 죽였다.

제 2 황자의 권력은 아르안과 같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을 만한 것이 아니다.

"레티아."

"응."

레티아가 조용히 대답한다.

"시엘라는 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 달라고 그랬어."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것도 우습지만, 레티아한테 정말 미안했다고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는 레한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다.

레티아가 다시 울음을 터트린다.

설마 진짜로 자신이 시엘라의 마지막 말을 전하게 될 줄은 몰랐다.

나중에 다시 만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아르안이 기사단을 보내 시엘라를 죽였다.

아르안은 시엘라와 가장 접점이 적은 편이었다.

가까이서 시엘라를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시엘라가 죽임당해야 할 정도로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다고 생각했겠지만, 멀리서 소식을 전해 듣기만 한 아르안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레한은 시엘라가 단순히 악행을 벌인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시엘라가 죄책감을 느끼는 듯 하면서도 레티아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시엘라의 괴롭힘에 악의가 담겨 있지 않은 것을 알았다.

그래서 공작가에서 쫓겨난 상태의 시엘라에게 찾아갔다.

시엘라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

레한은 천천히 공작가 밖으로 나왔다.

레티아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있을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나중에 레티아가 진정했을 때쯤 다시 오기로 마음먹은 레한이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한다.

시엘라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사실을 밝힌다고 해도 이미 늦었다.

아르안이 시엘라를 죽여버렸으니까.

애초에 아르안은 시엘라와 별 접점이 없던 녀석이다.

대체 무슨 원한이 있었기에 그랬던 건지 모르겠다.

"아직 안 간 거냐?"

레한이 알트레온에게 묻는다.

알트레온은 공작가를 떠나지 않은 채 레티아의 방 근처에서 맴돌고 있었다.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지?"

"시엘라가 죄가 없었다는 이야기."

"죄가 없다고?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움직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엘라 자신이 레티아를 괴롭혔다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알트레온은 자신이 시엘라를 쫓아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네 변명에는 관심 없어. 시엘라가 어디서 죽었는지나 말해."

"무슨 소리지?"

"시엘라가 어디서 죽었는지 말하라고."

레한이 거칠게 쏘아붙인다.

알트레온이 아직 황가로 돌아가지 않았으니, 물어보려고 했던 질문을 지금 했다.

황실 기사단이 시엘라를 처리했다는 곳에 찾아가봐야 한다.

마차를 습격했다고 했으니 무언가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일기장과 목걸이와 같이 시엘라에 대해 말해 주는 물건이라던가, 그런 것.

"아르안이 말하기로는 북서쪽 교역로를 따라가면 나오는 숲이라고 하더군."

"그래."

그렇다면 찾아가기만 하면 된다.

"잠깐, 설마 그곳에 갈 생각이냐?"

"뭐가 문제지?"

"...시엘라는 죽었다. 포기해."

"나는 내 눈으로 확인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말이지."

시엘라의 목걸이, 여러 사람들의 증언.

그런데도 레한은 시엘라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죄책감이 레한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시엘라를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더라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시엘라를 멈출 수 있었더라면.

레한이 말에 올라탔다.

"알트레온, 아무래도 넌 황제가 될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다."

알트레온의 표정이 조금 일그러진다.

"그걸 판단하는 건 네가 아니라 지고하신 제국의 아버지이시다."

"현 황제께서도 네가 하는 짓을 보면 너를 차기 황제로 세우고 싶지는 않을 텐데."

레한이 알트레온에게 비아냥거리며 말을 몰았다.

그리고 서쪽 숲까지 달렸다.

알트레온은 시엘라가 죽은 곳을 직접 가본 것이 아니다.

아르안 역시 시엘라를 죽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죽이라고 시킨 건 아르안이지만 죽인 건 황실 기사단이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

그렇게 두 시간 가량을 전속력으로 달렸다.

결국에는 알트레온이 말한, 시엘라의 흔적이 있는 곳에 도달했다.

"젠장."

레한이 말에서 내리며 중얼거렸다.

얼마 전에 마차가 부서진 흔적과 잔해가 남아 있다.

아르테르크 공작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마차다.

레한이 주변을 살핀다.

한 곳에 몰려 있는 핏자국.

마법이 사용된 흔적.

기사들과 그들의 말의 발자국이 남아 있다.

그중에서도 유독 핏자국이 짙게 남은 곳이 있었다.

흙바닥에서도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짙었다.

부서진 마차에서도 흩뿌려진 핏물 자국이 보였다.

"개자식들이..."

낮은 목소리로, 분노에 차서 말한다.

레한은 알고 있었다.

이 정도로 많은 피를 흘리고서는 바로 치료받지 않는 이상 절대로 살아남지 못한다.

시엘라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처참한 습격의 흔적을 보고 있자니 고통스럽다.

시엘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것 같다.

마법에 어느 정도 소양이 있는 레한은 이곳에서 어떤 마법이 사용되었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었다.

모든 마법은 그 흔적을 조금이나마 남기기 마련이다.

시엘라에게 사용된 것은 속박용 마법이다.

죄수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잡아놓는 마법.

궁정 마법사들이 즐겨 쓰는 마법이다.

"시엘라는 도망치려고 했던 건가..."

레한이 씁쓸한 투로 중얼거린다.

시엘라가 도망치려 하지 않고 얌전히 죽임당했다면 마법이 사용되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는 죽기 싫었던 걸까.

"젠장, 젠장, 젠장."

시엘라가 정말로 사라졌다는 걸 인정할 때가 왔다.

아직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얄팍한 희망도 사라졌다.

대체 왜 일이 이렇게 된 것인지 생각했다.

대체 누구길래 황실 기사단까지 대동하여 여자애 하나를 죽일 생각을 하지?

아르안.

고귀하신 제 2 황자님.

모든 일의 원흉이 누구인지 따지고 들자면 끝이 없지만, 아르안이 주제를 알지 못하고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분명했다.

말하자면, 권력을 남용했다.

"황자들을 멈추려면 반란이라도 일으켜야 하나?"

레한이 헛웃음을 터트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언젠가는 알트레온이나 아르안이 황제가 될 것이다.

알트레온이 황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미래 일은 모르는 것이다.

아르안이 황제가 된다면 분명 폭군이겠지.

"...시엘라."

과거 여러 차례 시엘라를 만났다.

대화를 하거나 친해질 기회는 거의 없었지만, 레티아의 주변에 있는 것 만으로도 시엘라를 만나기엔 충분했다.

시엘라가 레티아를 괴롭히는 것까지도 보았다.

-레티아, 옷이 더러워졌네?

시엘라가 레티아의 발을 걸어 넘어트리며 말했다.

아주 어렸을 적 일이다.

레티아가 공작가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엘라가 레티아를 단순히 실수인 척 넘어트렸다.

마침 그 근처에 있던 레한은 그 광경을 처음부터 보고 있었다.

레한은 곧바로 레티아를 향해 달려가려고 했다.

시엘라가 서글픈 표정으로 레티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진.

항상 그랬다.

레티아에게 잘못을 저지른 후의 시엘라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는 듯 이상한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항상 시엘라를 지켜보곤 했다.

본래의 목적이었던 레티아와의 만남은 우선순위에서 차차 뒷전으로 밀렸다.

위험에 처한 레티아를 구하러 가는 역할은 알트레온에게 맡겼다.

시엘라를 생각보다 오랜 시간동안 지켜봐와서 그런지, 레한은 생각보다 시엘라에게 많은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미 늦었지만.'

정말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진작에 말로 표현했어야 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용기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시엘라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는 친했더라면 시엘라는 죽지 않았을까?

의미 없는 고민이다.

그렇게 아르테르크 공작가의 악녀 하나가 사라졌다.

소문은 사람의 입을 타고 타서 평민들에게도 퍼져나갔다.

시엘라 아르테르크는 공작가에서 파문당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소문으로는 죽었다거나, 다시 공작가로 들어갔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시엘라는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황가에 보낸 서신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시종장이 말한다.

아렐이 생각을 멈추고 시종장에게로 주의를 돌린다.

황가에 보낸 서신.

아렐은 데르네아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황태자 책봉식에 관하여 서신을 보냈다.

예정대로라면 제 1 황자에게 서신이 갔을 것이다.

"알트레온이 답장했나?"

아렐이 심드렁하게 묻는다.

제 1 황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

"예, 제 1 황자님의 자필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시종장이 그렇게 대답하며 편지 봉투를 건넨다.

황가에서 쓴 답장이다.

"네르데아 백작가의 황태자 책봉식 참석을 허가한다... 별 건 없네."

제 1 황자가 쓴 것이 틀림없는 편지다.

글씨를 휘갈겨 쓴 걸로 봐서는 뭔가 급하게 처리할 일이라도 있었던 모양이다.

하인에게 대필을 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하인이 편지를 썼다면 오히려 글씨가 고르게 쓰여 있었을 것이다.

"황실 쪽 동향이 이상하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계속 얘기해."

"제 1, 제 2 황자님들이 서로 권력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귀족파는 제 1 황자님 편에 서기로 한 것 같습니다만, 아르안 황자님 편에 누가 서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싸웠다?'

제 1, 2 황자들이라 하면 아르테르크 공작가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렐이 시엘라를 구출해 네르데아 백작가로 데리고 오기 전, 시엘라가 제 1 황자에 의해 공작가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을 들었다.

아렐으로써는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지만, 아직 아르테르크 가에 대한 정보를 얻어올 곳이 부족했다.

네르데아의 첩보 능력이 아무리 좋다 해도 한계가 있다.

"아르테르크 공작가는 어떻지?"

"가문 내부의 분위기가 그리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른 건?"

"정보원이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엘라 아가씨가 깨어나시면 그때 물어보시는 것이 빠르지 않을련지..."

시종장이 시엘라에 대해 언급한다.

시엘라의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본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아렐이라고 시엘라에게 묻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질문거리가 잔뜩 있었다.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다.

"시엘라 누나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

그러나 시엘라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이 모종의 마법적 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시엘라 아가씨를 깨울 방도가 없다고 하더군요."

-똑똑똑.

시종장이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누군가가 급하게 문을 두드린다.

"들어와."

아렐이 그렇게 말하자마자 하녀 하나가 문을 열고 뛰어들어온다.

하녀가 급하게 달려온 것인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베르타, 무슨 일이지?"

시종장이 하녀의 이름을 부르며 묻는다.

이런 식으로 아렐의 집무실에 들어온 것은 상당한 무례다.

무례를 감수할 만할 가치가 있는 행동이어야 했다.

"그, 그게, 조금 전에 시엘라 아가씨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아..."

눈이 뜨였다.

푹 잔 느낌인데, 묘하게 배고프다.

대체 얼마나 잔 건지 모르겠다.

"아, 아가씨, 일어나셨군요!"

하녀 한 명이 침대 옆으로 달려와 말한다.

"전 베르타라고 해요. 아가씨가 깨어나시면 바로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바로 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무언가 말씀하실 것이라도?"

태도가 부산스럽다.

이름이 베르타라고 했지.

베르타는 내가 자고 있는 중에도 옆에서 날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제가 얼마나 잠들어 있던 건가요?"

얼마나 자고 있었는지 물어보자.

내가 하루 이틀 내리 잤다고 해도 이번만큼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무려 열흘 동안 자고 계셨어요. 오늘로 딱 열흘이네요."

베르타가 손가락을 꼽아가며 날수를 세더니 말한다.

"네?"

열흘 동안 잠들어 있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

동면 상태에 들어간 개구리도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고 있을 수가 있을 줄은 몰랐다.

정말 시간이 멈춘 듯이 자고 있었나 보다.

"의사님의 말로는 독도 독이었지만, 마법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베르타가 친절히 설명해 준다.

"그렇군요."

"혹시 마법에 대해 짐작이 가는 거 없으세요? 아렐 님이나 다른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일개 하녀라서 궁금하거든요."

베르타가 눈을 반짝이며 호기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묻는다.

마법 같은 건 잘 모른다.

소설에 그렇게 많이 묘사되어 있지도 않았고, 묘사가 되어 있어도 '누구누구가 마법을 썼다' 정도라서 자세히는 알 수 없었다.

"그게, 마법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열흘을 내리 잠들어 있었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마법이라는 게 있으니 개연성이 생긴다.

소설 속 세계라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런가요, 아무튼 오래 주무셨으니 배고프실 텐데, 일단 아렐님한테 보고하러 가면서 식당에 말해 두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베르타는 순식간에 방을 빠져나가 어딘가로 달려 나갔다.

활기차면서도 수다스러운 아이다.

아르테르크 공작가에서도 저 정도로 활발한 하녀는 찾기 어려웠는데.

그래서, 아렐한테 보고하러 간다고?

아렐이 누구였더라.

아 그래, 나를 구해줬다고 하는 남자아이 이름이었다.

아렐 데르네아.

잠들기 직전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이곳 데르네아 가문에는 묘한 동질감이 느껴진다.

소설 속에서 악역으로 묘사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기피를 받는 곳이니까.

나 역시 악역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캐릭터였다 보니 동질감이 느껴진다.

"몸은 잘 움직이네."

열흘동안 잠들어 있었다고 해서 몸이 굳었을까 걱정했는데 별로 그렇지는 않았다.

잠들어 있던 이유에 대해 추리해 보자면 아마 마법 보호구 때문이 아닌가 싶다.

마법 보호구가 사용자의 마력을 어마무시하게 잡아먹을 텐데, 소설 속에서도 마법 보호구를 쓰다가 며칠동안 정신 못 차리고 자리에 누워 있던 캐릭터가 있었다.

나도 아마 그 비슷한 맥락으로 열흘동안 잠든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마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고 아까 베르타라는 하녀도 그랬고.

'배고프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엄청난 공복감이 밀려온다.

열흘 동안 밥을 안 먹었으니 당연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무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시엘라 누나!"

문가에서 아렐이 나타났다.

"아렐 공자님?"

뭐라고 불러야 자연스러울지 모르겠다.

나한테 친근하게 대하긴 하지만 여전히 적응이 되지 않는다.

"몸은 괜찮아?"

"네."

아무런 이상이 없다.

열흘 동안 잠을 잤다고 하는데, 아직도 전혀 믿기지가 않는다.

그냥 푹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진찰해."

아렐이 의사로 보이는 사람에게 지시했다.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의사가 진찰하면 무언가 다를지도 모르지.

의사가 알아서 진찰하도록 내버려 뒀다.

"네, 큰 이상은 없어 보이는군요."

"다행이다."

의사의 말에 아렐이 안심하며 말한다.

"공복감이 엄청나실 것 같은데, 우선 식사부터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의사 아저씨가 말했다.

이분은 명의라고 해도 되겠다.

내가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바로 집어내다니.

의사로서의 실력은 확실해 보인다.

"누나, 배고파?"

아렐이 묻길래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하긴. 계속 잠들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구나. 바로 식사를 가지고 오도록 시킬게."

웃음 지으며 말한다.

얼마 안 있어 하인 한 명이 식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먹으라는 의사의 조언을 따라서인지, 식단은 수프와 매우 부드러운 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만족할만한 식사를 마쳤다.

어느 정도 기운을 되찾고 있는 것 같다.

자면서 열흘씩이나 굶은 것 치고는 몸이 멀쩡한 편이다.

그건 다시 말해 열흘 동안 계속 백작가에 신세를 지고 있었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곳 네르데아 백작가가 아니라 시골 구석 마을에 들어가 있어야 했는데, 계획을 많이 벗어나 있었다.

원작대로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지.

"감사합니다. 덕분에 기운을 차렸어요."

일단 아렐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시엘라 누나, 걸을 수 있겠어?"

"네."

충분히 걸을 수 있다.

열흘간 자고 있었다고 해서 열흘 굶은 사람처럼 힘이 없는 게 아니었다.

열흘정도 신체의 시간이 멈춰 있었다고 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최소한 내가 내 몸을 느끼기로는 그랬다.

"별 문제는 없을 거야. 의사의 말만 들어봐도 마법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했으니까. 열흘정도 잠들어 있었다고 해서 불안해할 건 없어."

아렐이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한다.

"그럼 우리 같이 조금만 걷지 않을래? 저택을 소개해 주고 싶어서."

"아, 네. 부탁드릴게요."

"힘들면 그냥 쉬어도 괜찮아."

걸으면서 이야기나 하자는 것 같다.

아렐 네르데아.

소설 속에서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었던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

"여긴 정원으로 가는 복도. 저쪽에 내 집무실이 있어."

아렐이 열심히 저택 내부를 소개해 준다.

아르테르크 가와 비교했을 때에도 별로 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곳 네르데아 백작가가 사람들은 더 적었지만.

"여기가 바로 정원이야. 내가 제일 아끼는 장소 중 하나."

아렐과 함께 걷다 보니 네르데아 공작가를 대부분 탐방할 수 있었다.

아르테르크 공작가에서만 틀어박혀 있던 나로써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다.

"굉장하네요."

"누나, 존댓말은 부담스러워."

"네, 아니, 응."

한번 존댓말을 썼더니 이젠 존댓말을 안 쓰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지만 친근해 보여도 나는 이 아렐이란 아이를 잘 알지 못한다.

어째 얘는 나를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아, 열흘씩이나 자기 집에서 자고 있으면 익숙해질 만도 했지.

근데 그렇다 쳐도 아렐은 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살갑게 굴었다.

"궁금한 거 있어?"

응접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있긴 있어요."

"그럼 일단 여기 앉아. 뭐든 대답해 줄 테니까."

백작가의 응접실 탁자에는 항상 간식이 구비되어 있었다.

간식을 먹고 싶다는 건 아니고, 그냥.

아렐과 마주 보고 자리에 앉았다.

"물어보고 싶은 건 뭐야?"

아렐이 눈을 밝히며 묻는다.

정말 뭐든지 대답해 주겠다는 기세다.

"...왜 저를 구해주신 건가요? 그럴 의무는 없었을 텐데."

조금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아렐에게 실례가 되는 질문일까?

"당연하지 않아? 애초에 이미 시엘라 누나는 내 목숨을 살린 적이 있으니까. 내가 은혜를 갚을 차례지."

아렐이 바로 답했다.

당연하다면서 당당하게 말했다.

이번엔 아렐이 한 말을 이해하는 것에 시간이 좀 걸렸다.

"어..."

내가 아렐의 목숨을 살린 적이 있다고?

기억 안 나는데.

"난 나를 구해준 상대를 잃어버리기는 싫은걸."

아렐이 가깝게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언제 제가 당신을 구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나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상대방이 기억하고 있다

나름 기억력이 좋다고 자부하는 나인데도, 어째선지 아렐을 마주친 기억은 없었다.

소설 속에서나 언급되었다는 걸 기억할 뿐.

"그럼 내가 대답해 줬으니까, 누나도 대답해 줄 거지?"

아렐이 그렇게 말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나간다.

"아르테르크 공작가에서 무슨 짓을 당한 거야?"

농담기 없는 질문이다.

하긴, 왜 안 물어보는 건가 싶었다.

나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나서 내가 왜 쫓겨났는지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공작가의 위신을 떨어트려서 버려진 거예요."

요약하자면 이게 맞다.

악역이었으니까 쫓겨났다.

그것뿐.

"시엘라 누나가 잠든 동안 정보를 모았어. 누나가 아르테르크 공작가의 막내 공녀를 질투하여 쫓아내려 했다가 실패했다고들 하더라."

"와, 잘 알고 계시네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

나한테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만족스럽다.

아렐은 내가 만들어낸 상황 그 자체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

내가 소설을 따라가려고 했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느껴져서 묘한 만족감이 든다.

내가 공작가에서 쫓겨났다는 것도 애초에 내가 원했던 일이니까.

게다가 도망친 후엔 시엘라 아르테르크라는 이름을 버릴 예정이었다.

'시엘라'라는 캐릭터의 명예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그만이었는데.

예정대로 일이 흘러가진 않았다.

"정말로 그랬던 거야?"

아렐이 묻는다.

"정말로 그랬던 거야?"

아렐이 묻는다.

어쨌든 아렐은 자신이 얻은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것 같다.

내가 악역이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네."

소설 속 시엘라와 같이 행동했다.

순간 아렐에게는 내 진심을 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럴 정도로 친해진 건 아니다.

"애초에 저는 아렐 님이 구해주셔야 할 정도로 착하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애초에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황실 기사단에게 공격받고도 살 수 있을 줄은 몰랐다.

아렐은 일종의 기적같은 존재.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구출당하는 건 여주인공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지.

"누나가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다면야 더 캐묻진 않을게."

아렐은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내가 구해줬다는 소리를 하긴 했지만 숲 속에 쓰러져 있던 나를 어떻게 구해준 건지 전혀 모르겠다.

이 이상 생각해봤자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생각을 포기했다.

"그럼 이제 말해 둘 건 시엘라 누나의 처분에 관해서인데."

아렐이 헛기침을 한 뒤 말한다.

이게 본론인가.

이제 슬슬 나를 저택에서 내보내려는 것 같다.

기억은 없지만 내가 저택에 열흘을 넘게 머물렀으니 그럴 때도 됐다.

본래 목표대로 아델이라는 마을로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든 저러든 이대로 그냥 백작가를 떠나는 건 양심이 없는 짓이다.

목숨도 살려주고 간병까지 해줬는데.

뭐라도 사례를 해야 한다.

'이 상태로는 사례금은 못 준비하는데.'

사례를 하기에는 돈을 전부 잃었다.

황실 기사단이 마차에 챙겨갔던 물품들을 죄다 가져갔으니까.

그래도 백작가를 나가려면, 그동안 신세를 진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

-툭.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를 빼서 내려놓았다.

목걸이와 같은 마법 보호구이니 값어치는 꽤 나가는 편이다.

이 정도라면 괜찮겠지.

"팔찌?"

"사례금 대신으로 드릴게요."

아렐 쪽으로 팔찌를 내밀었다.

아렐이 당황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마법 보호구니까 상당한 가치는 있을 거에요."

설마 마법이 걸린 팔찌로도 부족한가?

아, 하나 더 있긴 하다.

마술식이 새겨진 반지.

보호구라기엔 성능이 애매해서 잘 쓰이지는 않는 마법 물품이다.

어쨌든 마법이 걸려 있기는 하니까 대가로는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까지 내려놓을 생각이다.

'역시 부족한가...'

"누나, 여기서 떠나려는 거야?"

"어, 지금 저보고 떠나라고 하신 게 아니었나요?"

그 소리를 하려던 것 아니었나?

"제 처분에 관해서 얘기하신다길래..."

말끝을 흐렸다.

내가 지레짐작했던 건가.

책상에 내려놓았던 팔찌를 다시 주워들었다.

"절대 누나를 내쫓으려던 건 아니야. 마찬가지로 사례금을 요구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계속 머물 수도 없는걸요."

"어? 계속 머물러도 되는데."

"네?"

잠깐의 정적.

계속 머무를 수 있다고?

계속해서 이런 좋은 저택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건 나쁘지 않을 일이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이 저택에 원래부터 살던 사람도 아닌 데다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다.

"혹시 달리 갈 곳이 있는 거야?"

아렐이 질문해 온다.

갈 곳이라 하면 있기는 하다.

아델이라는 마을로 가려고 그랬지.

그런데 그 마을은 네르데아 백작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게다가 예정대로라면 아델에서 집 한 채 정도는 구할 수 있었을 만큼의 돈도, 전부 빼앗겼다.

"갈 곳은 없지만..."

현재로서는 마법이 걸린 팔찌와 반지가 전 재산이다.

갈 곳은 고사하고 갈 방법조차 찾기 힘들다.

공작가로 돌아가는 게 아닌 이상.

아르테르크 공작가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다.

소설 속 인물들과 다시는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한 지가 언젠데.

"그럼 계속 편하게 머물러도 좋아. 어차피 시엘라 누나가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도 네르데아 공작가도 없었을 텐데 뭐."

아렐이 그렇게 말하며 나를 안심시킨다.

그 '구해줬다'는게 대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하지만.

"팔찌는 안 줘도 괜찮아."

네르데아 공작가의 아렐 네르데아.

소설 속에서는 둘도 없는 악당 가문으로 묘사되어 있었고, 아렐에 대한 언급은 좋지 않은 쪽으로만 넘쳐났다.

그러나 내가 직접 본 네르데아 가는 달랐다.

소설과는 달리 사용인들 사이는 화목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악당이라고 할 만한 짓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렐도 전혀 나쁜 쪽으로 묘사될 건덕지가 보이지 않았고.

물론 이건 내가 아직 네르데아 저택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로 원작과 이 세계가 다른 거라면 그건...

누군가가 세계의 흐름을 바꿨다.

원작과는 다른 전개로 비틀렸다는 건데, 좋은 방향으로 달라져서 그나마 다행이다.

"내가 누나의 처분에 관해 말한 거는, 아, 처분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하네. 아무튼 그건 별 건 아냐. 그냥 누나가 어느 방에서 지내고 싶냐고 물어보려던 거였어."

"방?"

"누나가 원래 있던 곳은 사람들 간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침대방이라, 오래 지내려면 다른 방이 필요할 거거든."

저택을 구경시켜준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나?

마음에 드는 방이 있으면 고르라고 하려던 거였나 보다.

"...제가 정말로 계속 지내도 되는 건가요."

네르데아 백작가와는 말 그대로 일면식도 없었다.

"응, 부담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 순전히 내 호의로 인한 거니까. 은혜를 갚고 싶기도 하고."

아렐이 웃으며 말한다.

"그럼 방은 아무 곳이나 편하신 대로..."

방이야 어디든 상관없다.

솔직히 지금 쓰던 침대방으로도 만족하는데.

"그럼 방은 적당한 곳으로 마련해 줄게. 더 궁금한 건?"

"그러고보니 백작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본래대로라면 네르데아 백작이 이 모든 저택과 백작가를 전부 관리하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백작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 아빠는 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계셔. 전권을 나한테 위임하시고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떠나셨지."

네르데아 백작은 아들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어딘가로 떠났다.

아렐이 백작가 내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유를 알겠다.

아마 소설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네르데아 백작이 떠난 바람에 아렐이 백작위를 물려받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저는 백작님이 총책임자가 아닌가 싶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백작가 자체를 물려주고 가서 그래. 1년 후에 정식으로 백작위를 승계받을 생각이야."

아렐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한다.

아버지의 오랜 기간 부재중인 것에 익숙해진 모양이다.

네르데아 백작이 생각보다 더 책임감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럼 끝?"

"아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뭐든지 말해."

"계속 이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백작가에 신세를 진 채로 계속 살고 싶지는 않다.

다른 곳으로 갈 방도가 마땅치 않으니 네르데아 백작가에 머물러야 하겠지만, 놀고먹을 수만은 없으니 일을 해야 한다.

남에게 빚지기 싫어하는 성격도 한몫했다.

"일?"

"저는 이곳 네르데아 백작가를 더 크게 키워 드릴 수 있어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내 소설 속 지식을 이용한다면 뭐든지 가능하다.

"그럼 누나가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네?"

아렐이 재밌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르데아 백작가는 시엘라가 있었던 아르테르크 공작가와의 사이가 나쁘다.

그러니까 내가 네르데아 백작가를 키운다면, 아르테르크 공작가에 대한 소소한 복수를 할 수 있겠지.

이거라면 백작가에 머무를 수 있는 대가로 충분하지 않을까?

아르테르크 공작가에선 '시엘라'의 역할에 몰입하느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주인공이랑 다른 조연들이 악역 시엘라를 처치하도록 내버려 뒀을 뿐.

하지만 네르데아 백작가라면 어떨까.

"전력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 조금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

네르데아 백작가의 권력을 늘려가는 쪽으로.

소설 전개상 여주인공인 레티아는 무조건적으로 네르데아 백작가와 접촉하게 되어 있다.

아마도 그 접촉 대상은 아렐.

2년 정도 후의 일이지만,

기왕이면 아렐을 제대로 도와주도록 하자.

도와준 것도 고맙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기도 하고.

소설 속에 묘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몰랐지만, 어지간한 주인공 뺨치는 외모다.

제 1 황자라던가, 레한이나 다른 남자 주인공들로 인해 잘생긴 것에 면역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반말."

아렐의 목소리에 생각이 멈췄다.

존댓말 쓰지 말라며 장난기 어린 눈으로 바라본다.

"네?"

존댓말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온다.

"말 놓을 거지?"

"아, 응, 알겠어."

아직 익숙하지가 않지만, 말을 놓는 것 정도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렐은 내가 존댓말을 쓰면 불편해하는 것 같으니 말투를 바꿔 주자.

"그럼 한동안은 잘 부탁해, 아렐."

돈을 모았다거나 다른 곳으로 도망칠 수단을 확보했을 때라면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때까지는 이곳에 머물러야겠지.

"응, 잘 부탁해."

그렇게 대화가 마무리됬다.

"-난 누나가 나한테서 떠나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뭐든 좋으니까."

그렇게 응접실을 나서려는 순간, 옆에 있던 아렐이 작게 속삭였다.

아렐의 목소리에 귓가가 간지러워서 잠깐 몸이 굳었다.

방금 되게 위험한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겠지.

아렐은 시엘라가 내놓으려고 했던 팔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아직은 시엘라를 네르데아 백작가에서 때어놓을 수는 없다.

말 그대로 생명의 은인인 그녀를 위험에차하게 둘 수는 없다.

"마법 보호구..."

아렐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혼잣말했다.

처음 시엘라를 숲 속에서 발견했을 때, 시엘라의 옷은 핏자국으로 뒤덮여 있었다.

검에 찔린 듯이 찢겨져 있던 옷.

하지만 시엘라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아마도 보호구가 제 역할을 다한 것이겠지.

시엘라가 보였던 특유의 중독 증상은 황실이 보유한 맹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네르데아 백작가에 상주하고 있는 의사가 아니었더라면 치료하는 데 애를 먹었겠지.

"누나가 대체 왜 그런 걸 가지고 있었지?"

전쟁 때나 쓰이는 것이다.

황제가 전쟁에 참전할 때 대량으로 들고가서 방어를 굳건히 하는 용도.

이곳 루거르트 제국은 전쟁이 마지막으로 일어난 지 50년이 넘었다.

작정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면 마법 보호구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물론 귀족이라면 한두 개쯤 구비해 두고 다닐 법도 하지만.

'백작가에서 지내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줄은.'

시엘라가 머무르는 대가로 아렐을 돕겠다고 했다.

아렐 자신의 호의를 그냥 받아들여줄 생각은 없어 보였다.

'진작에 친분을 좀 쌓아 뒀어야 했는데, 망할 아버지 때문에 늦었어.'

아렐이 속으로 투덜거린다.

그래도 시엘라와는 서서히 부담감을 줄여나가고 친해지면 될 것이다.

네르데아 백작가의 집무실은 항상 조용하다.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누구도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 두었으니까.

-똑똑.

"들어와."

문을 노크한 건 시종장, 아렐의 집사 역을 맡고 있는 노인이다.

"무슨 일이지?"

"아르테르크 공작가 관련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보고드리면 될련지요?"

"황실 관련 정보는 아직 없나?"

"황가 쪽에서는 여러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공작가 쪽 소식부터 전부 말해 줘."

아렐이 말했다.

수도와 가깝지 않은 네르데아 백작가에선 항상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시엘라가 공작가에서 쫓겨난 지금처럼 이상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때에는 특히.

"공작가에서 시엘라 공녀님을 다시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

"아르테르크 가의 막내 공녀님이 시엘라 아가씨가 돌아오기를 바랐다고 하더군요."

"인제 와서?"

이미 쫓아내 놓고선 다시 찾고 있다니.

무슨 말장난인지 모르겠다.

시엘라를 돌려줄 생각은 없다.

"아마 여러 사람들이 의뢰를 받고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색 활동이 멈춘 것으로 보아하니 아마 시엘라 아가씨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지..."

집사가 자신의 추측이라며 말했다.

"그래, 시엘라 누나한테는 내가 말해 두도록 하지."

아렐이 대답했다.

아르테르크 공작은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인간이었으니, 제 1 황자에 의해 자신의 딸이 쫓겨나는 것에 불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낸 아이를 다시 데려오는 것을 허용했다고?

시엘라를 데리고 오라 했다는 막내 공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건 황가 쪽 소문입니다만, 제 1, 2 황자들은 여전히 권력 다툼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황제께서는 방관하고 계시다고 하니,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1 황자인 알트레온과 제 2 황자인 아르안이 싸우고 있다고 한다.

우연하게도 시엘라가 공작가에서 버려진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가 가깝다.

황자들은 아르테르크 가문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니 무언가 연관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렐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외에 달리 흥미로운 것들은 없나?"

"그저께 신전에서 신탁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신탁? 그거 3년 만에 있는 일 아냐?"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말해 봐."

신탁이 정말 중요한 내용의 신탁이었다면 미리 보고를 했을 것이다.

아마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지.

신탁이라는 것은 항상 모호하기 마련이라, 그 뜻은 해석하는 사람에 달렸다.

그래도 3년만에 내려온 신탁이니 궁금하긴 하다.

시종장이 안경을 고쳐 스며들고 있던 종이를 천천히 읽어내려간다.

"`신성한 빛이 그곳에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짧네, 그게 다야?"

아렐이 말했다.

물어볼 때까지 보고하지 않은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외에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걸로는 정보가 부족해, 정보원들을 더 모아보는게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더 올려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직접 가서 보는게 빠르겠어."

아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황가에 가실 예정이십니까?"

"어차피 백작위 승계식 때문에 황제를 만나야 하기도 했고. 일정을 좀 앞당기도록 하지."

1, 2 황자의 면상이나 보고 오도록 하자.

시엘라를 죽이기 위해 황실 기사단을 보낸 건 황자들 중 하나일까 아닐까?

"...아, 맞다. 시엘라 누나는 자고 있어?"

"예. 베르타를 보내 시중들게 했습니다. 아가씨께서 그 하녀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시던 눈치더군요."

"그렇군. 누나가 일어나면 하고싶은 거 다 해도 된다고 그래. 저택 소개도 제대로 해 주고."

아렐이 그렇게 말하며 기지개를 켰다.

이른 새벽부터 일하는 건 귀찮은 일이다.

"그리고 황가에 방문하겠다고 편지를 써."

"알겠습니다."

이제 황실에 방문할 준비를 해야 한다.

백작위 승계에 황제의 동의를 받을 겸, 황자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르데아 백작가에서 조만간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알트레온이 보고를 받았다.

"네르데아 백작가?"

"백작위 승계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한테 가는 거라면 나한테 보고할 이유가 없을 텐데?"

정식 백작위 승계식에 필요한 건 황제의 동의서뿐이다. 알트레온과는 하등 상관없는 일이다.

"그것이... 황자님들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만."

집사가 말했다.

"오라고 그래."

네르데아 백작가라면 상당히 수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다.

권력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기에 아직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는 가문.

"잘하면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

자신을 지지하는 가문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엘라를 죽였다는 이유로 레티아와 사이가 틀어진 아르안이 황태자 임명식을 두고 반발했다.

아르안이 권력 싸움을 걸어온 탓에 알트레온은 자신의 편을 들어줄 가문이 하나라도 더 필요한 상태였다.

네르데아 백작가가 자진해서 자신의 편에 붙어 준다면 그 사실만으로 상당한 이득이다.

네르데아 백작가의 힘은 여타 공작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꿀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왜 굳이 나를 찾아오려는 거지?"

네르데아 백작가에서 아직 제 1 황자일 뿐인 알트레온을 방문해야 할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트레온은 직후 집사가 건네준 편지를 읽었지만, 딱히 알트레온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적혀 있진 않았다.

"뭐, 만나 보면 알겠지."

한동안 황가와의 접점이 없던 네르데아 백작가가 갑자기 연락해 온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알트레온은 그런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지금은 아르안과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럼 지금 망할 아르안은 지금 뭘 하고 있지?"

알트레온이 집사에게 묻는다.

레티아와의 사이가 멀어진 건 아르안 뿐만이 아닌데도, 아르안은 8살 먹은 어린애만도 못하게 싸움을 걸어왔다.

"아르안 황자님께선 황실 기사단을 추궁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정보를 빼돌렸을 거라면서..."

"그래, 내버려 둬라."

한심하다.

시엘라를 죽이라고 명령한 건 아르안이다.

자신의 명령이 위험한 명령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인데.

아르안이 시엘라를 죽였다.

알트레온은 시엘라가 악행의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일기장을 보면, 시엘라에게 그 행동을 한 이유가 달리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지만...상관없다.

`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 처음부터 시엘라가 레티아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겠지.`

알트레온은 그렇게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죄책감을 억눌렀다.

그냥 모든 잘못의 근원이 시엘라에게 있다고 생각하기로 한 모양이다.

"이제 나가 보도록."

알트레온의 말에 집사가 문을 닫고 나갔다.

방에 있는 것은 알트레온 혼자뿐이다.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친 지금, 평상시와 같이 레티아를 찾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배신자.'

그렇게 말한 레티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난다.

레티아는 꽤 시간이 지난 지금도 알트레온이 찾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게다가 아르안에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실망했다는 편지를 전했지.

제 1 황자의 권력으로 레티아를 자신과 강제로 만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다간 아르테르크 공작가 전체에서 평판이 나빠질 것이다.

레티아에게는 영원히 신뢰를 잃겠지.

"제기랄, 일이 꼬였어."

알트레온이 다시 머리를 부여잡고 중얼거린다.

"시엘라 아르테르크, 전부 네 탓이다."

이미 죽은 사람을 원망했다.

알트레온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시엘라가 처음부터 레티아와 사이좋게 지냈더라면 됬을 일인데.

처음부터?

문득 알트레온은 레티아가 처음부터 아르테르크 가에 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떠올렸다.

분명 레티아가 9살 즈음에 아르테르크 공작가에 양녀로 들어갔지.

시엘라는 그때부터, 레티아가 공작가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엘라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싫었던 걸까?

아니, 괴롭힘에 무슨 사정이 있었던지간에 알 바는 아니다.

어쨌든 시엘라가 잘못한 것이다.

'시엘라'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만약 원작의 시엘라와는 다른 길을 걸었더라면?

레티아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여주인공인 레티아가 여주인공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물론 그것이 나 자신을 바쳐다가 희생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까지 천사같은 사람은 아니다.

다른 사람 하나를 위해 인생을 바칠 정도로 헌신적이지는 않다.

작가가 쓴 외전, if. 시엘라가 주인공을 괴롭히지 않았다면?

작가가 소설을 전부 집필한 뒤 만든 if 시나리오.

시엘라가 악역이 아니었다면?

레티아는 다른 남주인공들과 만날 일도 적어진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다른 캐릭터들과의 관계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여주인공이 나서서 바꿔놓아야 했던 일들도 바뀌지 않았다.

한 마디로 말해 여주인공의 선행이 없는 세계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레티아는 여주인공이다.

무릇 소설 속 여주인공이라면 특별한 능력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다.

레티아라고 다르진 않다.

소설 후반부에 자세히 나오지만, 선택받은 자라고 하면서 신성력이라는 힘을 쓸 수 있게 된다.

레티아에게 성녀의 자질이 있는 거라 했었지.

아마 일종의 신탁이 내려온 뒤로 쓸 수 있게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하튼 그 신성력이라는 건 마법을 쓰기 위한 마력과도 비슷한 것이라, 레티아는 여러가지 기적을 선사할 수 있게 된다.

소설의 막바지에서는 레티아가 그 신성력을 이용한 기적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여주인공인 레티아가 신성력을 얻지 못한다면, 남주인공들과 엮이면서 신성력을 사용하는 법을 찾지 못한다면 일이 심각해진다.

신성력이라 불리는 기적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소설 속에 있는 악당들을 막을 수가 없다.

주인공이 있으면 악역도 있다.

레티아는 자신이 가진 신성력으로 그런 악당들을 무찌른다.

그러나 만약 시엘라가 레티아를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레티아가 다른 남자 주인공들과 만날 일이 없었다면?

레티아는 신성력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애초에 자신에게 신성력이 있다고 깨닫는 계기가 되어주는 게 하렌이나 알트레온 같은 남주인공들이니까.

그랬다간 나중에 밀려오는 위험들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대악마라던가, 위험한 마물이라던가. 레티아가 가진 신성력으로만 없앨 수 있는 것들이 많았지.'

단순히 악당이라고만 하면 실감 나지 않겠지만, 사람 수천 명이 죽어 나가는 지옥이 펼쳐진다.

신성력을 가지지 못한 레티아는 그런 것을 막아내지 못한다.

`시엘라`가 쫓겨나는 것으로 스토리가 진행되기에 나는 끝까지 악역으로 행동했다.

신성력에 관한 스토리는 시엘라가 공작가에서 버려지면서 진행됬으니까.

그래도 아직은 신탁이 내려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소설 전개를 되짚어 보자면 시엘라가 공작가에서 사라진 후 몇 개월은 지나야 신탁이 내려왔으니까.

"신탁..."

그러고 보니 이 세계에 와서 신탁이란 걸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네? 아가씨?"

방에 간식을 가지고 온 베르타가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 이상 상념에 빠져 있는 건 좋지 않은 것 같다.

"아가씨도 신탁이 왔다는 소문을 들으셨나요?"

"어?"

그런 소문 들은 적 없는데.

"베르타, 그게 무슨 소린지 자세히 말해 주지 않을래? 신탁이 왔어?"

"네. 그런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른대요. 내용이 모호해서."

"신탁이 온 건 언제쯤이야?"

"며칠 전에 온 신탁이라고 그러셨어요. 주워들은 거라서 확실하진 않지만."

"주워들은 거구나..."

신탁이 왔다는 사실 자체는 확실할 것이다.

생각보다 신탁이 빨리 내려온 것 같은데, 신탁이 오는 시간은 항상 다르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해야겠지.

이미 신탁이 왔다는 건 레티아가 지금쯤이면 신성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아닐까?

레티아가 자신이 신성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채는 것은 남주인공 중에서 제 1 황자인 알트레온의 활약이 크다.

레티아와 알트레온은 나를 합심해서 잘 쫓아낸 만큼 서로 더욱 친해졌을 테고, 사이가 좋아진 만큼 레티아의 신성력 발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지.

분명 그럴 것이다.

알트레온은 좀처럼 레티아와의 사이를 원래대로 되돌려놓지 못하고 있었다.

레티아는 자신이 시엘라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시엘라를 공작가에서 쫓아낸 탓에 죽은 거라고 자책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방에 틀어박힌 레티아를 위로해 주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절뿐.

알트레온은 이제 반쯤 레티아와의 사이를 다시 좁히는 걸 포기한 상태였다.

시간에 맡겨, 계속해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다시 레티아가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의 원인은 전부 시엘라 아르테르크 때문이다.

자신이 레티아와의 사이가 나빠진 것도, 아르안에게 죽임당한 것도 전부.

책임은 시엘라에게 있는 것이다.

"네르데아 백작가에서 찾아왔습니다."

집사가 말했다.

알트레온이 매일같이 레티아를 찾아가는 것에 질린 참이다.

이런 식으로 손님이 온다면 오늘만큼은 아르테르크 가를 방문하지 못할 테니 다행이다.

"간다고 전해."

알트레온이 응접실로 걸음을 옮겼다.

현재 네르데아 백작가는 조금 특이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네르데아 백작의 행방이 묘연해진 덕에 그의 아들이 이른 나이에 백작위를 물려받아야 했다.

알트레온이 그에 대해 아는 것은 거기까지.

어째서 자신을 찾아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는 바가 없었다.

"-황태자님을 뵙습니다."

아렐이 간단히 인사한다.

황제의 뒤를 이을 것이 알트레온이라고 생각하는 듯, 제 1 황자와 같은 수식어가 아닌 황태자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네르데아 백작가라고 했나, 반갑군."

알트레온이 자리에 앉았다.

아렐 네르데아는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 인간이었다.

나이가 아직 어리다고 들었는데, 비슷한 나잇대인 아르안에 비해 수십 배는 어른스러워 보인다.

아르안과 정치적인 다툼이 생긴 상태인 만큼, 더욱 더 아렐의 존재가 아르안과 대비되어 보였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용건이 있다면 말하도록."

업무 시간이 끝났지만 아직 레티아를 찾아가지 못했다.

기왕이면 이 대화도 빨리 끝내고 아르테르크 공작가에 찾아가고 싶었다.

레티아에게 다시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찾아가 보고 싶었다.

"아르안 황자님과 분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렐이 입을 열었다.

"그래서?"

"저희 네르데아 백작가는 전력을 다해 황태자님께 협력할 생각입니다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을 수 있을까요?"

"협력이라...무얼 원하지?"

"아시다시피 저희 네르데아 가는 대대로 황가에 충성을 바쳐왔습니다. 절대로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흠, 그런가."

알트레온은 생각보다 일이 수월하게 풀려가는 것에 내심 기뻐했다.

자신에게 협력할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 그럴 필요성이 사라졌다.

`제 1 황자는 생각보다 단순한 인간인가?`

아렐은 그렇게 생각하며 속으로 알트레온을 비웃었다.

현 황제처럼 위엄을 갖춘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도 않다.

네르데아 백작가가 자신의 편에 붙겠다는 것에 안심하며 기뻐하는 것으로만 보인다.

"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뭐지?"

"제가 황성 근처에 와서 들은 소문인데, 근래 어느 공작가에서 공녀 하나가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황태자님이 그에 대해 아시는 것은 없는지?"

알트레온이 황실 기사단을 보내 시엘라를 죽이려 했던 것인지 떠볼 필요가 있었다.

"난 잘 모르는 일이군."

알트레온이 시치미를 떼고 대답했다.

아무리 그래도 제 1 황자인 이상 어느 정도의 눈치는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묻다간 되려 수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 조금은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바쁘신 것 같으니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네르데아 백작가 가주로써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렐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제 2 황자를 찾아가 볼 시간이다.

방문하겠다는 편지를 쓴 건 비단 제 1 황자 뿐만이 아니다.

권력 다툼 중이라는 제 2 황자에게도 찾아가 볼 예정이었다.

제 3 황자라던가, 황녀와 같은 다른 황가 일족들도 있었지만, 별다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가 너무 어려서 배제했다.

황실 기사단을 보낸 것이 설마 황제일 리는 없을 테고, 제 1 황자가 아니라면 2 황자인 아르안이 남는다.

`시엘라 누나는 누가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알고 있었을까?`

그에 대해서는 자세히 묻지 않았다.

아렐은 굳이 시엘라가 자신이 죽을뻔했을 때의 기억을 되짚어 보도록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아렐은 그렇게 제 1 황자를 만났던 것처럼 제 2 황자를 방문했다.

"황태자님을 뵙습니다."

아렐은 딱히 제 1 황자의 편에 붙으려던 건 아니었다.

정보를 캐내기 용이하도록 말한 것일 뿐.

"네르데아 백작가라고 했지, 미안하군. 황실 기사단에 다녀오느라 늦었다."

아르안은 그렇게 말하며 아렐을 맞이해 주었다.

"나를 황태자라고 부른 걸 보면 뭔가 아는 것 같군!"

아르안이 의기양양해진 채로 말한다.

기껏해서 15살짜리 꼬맹이다.

아렐의 나이보다도 한살 반 정도가 어리다.

"황실 기사단에 다녀오셨다 함은...?"

시엘라에게 검을 꽂은 건 황실 기사단이다.

그리고 제 2 황자가 기사단에 다녀왔다는 건 그와 연관이 있다는 게 아닐까?

아렐은 그렇게 생각하며 질문을 던졌다.

"아, 자네도 백작위를 물려받은 거라면 알겠지만, 아랫것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말이야."

아르안이 웃으며 말한다.

황실 기사단에 정보를 누출한 인간이 있다고 생각한 아르안은 몇 시간 동안 기사단에게 화를 내고 왔다.

시엘라가 죽었다는 것을 레티아에게 말할만한 사람이 없을 텐데.

알트레온 역시 누가 레티아에게 시엘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렸는지 알지 못했다.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징계가 필요하겠지요."

아렐이 아르안의 말에 대충 맞장구를 쳤다.

"그렇다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 것 제대로 못 해서야."

아르안이 혀를 찬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제대로 못 한다고?`

아렐이 아르안의 표정을 살폈지만, 자신이 무슨 이상한 말을 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저런, 무슨 일이었는지 궁금하군요."

공감한다는 듯 대답했다.

"으음, 궁금한가? 궁금하겠지? 내가 자네에게는 특별히 말해 주도록 하지. 자넨 나잇대도 비슷하고, 내 편인 것 같으니까"

아르안이 별 것 아니라는 듯 말하기 시작한다.

알트레온보다도 더 친해지기 쉬운 상대다.

아르안이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르테르크 공작가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부터 해서, 자신이 좋아하던 레티아가 누구고, 또 시엘라는 누구고 하며 설명을 이어나갔다.

"시엘라가 레티아 누나를 괴롭히는 걸 용납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아르안이 중간중간 분노에 차서 말했다.

제 2 황자의 체면에 맞지 않는 태도였지만, 아렐은 굳이 그것을 지적하진 않았다.

"-그렇게 해서 시엘라 아르테르크를 죽였어."

이야기의 마지막에 다다랐다.

아르안은 자신이 어떻게 마차를 매수했고, 어떻게 황실 기사단을 사용했는지까지 전부 말했다.

"황실 기사단에게 특별히 독으로 확실하게, 최대한 처참하게 죽이도록 했지."

아르안이 시엘라를 죽이려고 했다는게 확실해졌다.

`설마 자기 입으로 전부 털어놓을 줄은 몰랐는데.`

정리해 보자면, 아르안은 황실 기사단에게 상당히 자세하게 명령을 내렸다.

특별히 독을 사용하고, 시엘라 아르테르크를 최대한 처참하게 죽이라고 했다.

아렐은 커져가는 분노를 힘겹게 억누르고 얼굴에 티를 내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레티아 누나가 마음에 좀 상처를 입은 것 같은데,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 지금은 나를 싫어하게 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엘라가 다시 레티아 누나를 괴롭히거나 해코지할 확률을 없앤 거니까 칭찬해 주겠지."

레티아에 대해 말한다.

시엘라를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느끼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렇군요."

"그래도 알트레온 그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 그따위 인간을 형님이라고 부른 내가 멍청했던 거지."

"용서할 수 없군요."

아르안은 거침없이 알트레온을 향한 분노를 표출했다.

아렐은 그에 동조하는 듯 아르안을 바라보며 자신의 분노를 드러냈다.

"맞아, 게다가 저번엔 나한테서 황실 기사단을 움직일 권리를 빼앗아 가려고 했다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이지."

"말이 안 되는 짓이군요..."

아렐이 성의 없이 아르안에게 대답한다.

아르안에겐 그것으로 충분했다.

"뭐, 자넨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떠벌릴 사람이 아니라고 믿으니까 말해주는 걸세."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며 아르안이 말했다.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안이 이렇게까지 쉽게 정보를 털어 넣는 것에는 아마 자기 또래의 말상대가 거의 없었다는 것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그런데 황태자님, 황태자님은 레티아 공녀님과는 아주 친한 사이셨나요? 시엘라와도 만난 적이 많으시겠네요."

"...아마도. 시엘라는 몰라. 관심 없어서 별로 만난 적 없거든. 근데 맨날 괴롭혔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죽이기로 했어. 공작가에서 쫓겨나면 평민이랑 다를 것 하나 없으니까."

아르안이 자랑스럽게 말한다.

"애초에 레티아 누나랑 사이가 멀어진 건 나뿐만이 아니라니까. 알트레온 형이라고 별로 다르지는 않아."

아르안이 투덜거린다.

"어차피 시엘라가 다시 돌아올 일도 없고. 아무도 모를 거로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누군가가 레티아에게 시엘라의 죽음을 알렸다.

황실 기사단을 추궁했지만 그 중 누구도 아르테르크 가문에 간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랬으면 지금쯤 다 같이 평화롭게 있었겠지..."

아르안이 후회한다는 투로 말한 건 이번이 유일하다.

그래도 서로서로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왔으니 현재 상황이 크게 마음에 들진 않았던 것 같다.

"아, 그러고 보니 시엘라를 죽이고서 가져온 목걸이가 있었지."

"목걸이?"

아렐이 묻는다.

"이런, 직접 보여 주려고 했는데 알트레온에게 줘 버린 터라 없군. 피가 좀 묻어 있을 뿐인 거고.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어."

피가 조금 묻어있을 뿐이라는 대목에서 아렐이 표정을 살짝 일그러트린다.

그보다 황실 기사단은 사람을 죽이려던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물건을 빼앗기까지 했던 건가.

증거품이랍시고 가져간 것이겠지.

"설마 레티아 누나가 시엘라를 데리고 오라 할 줄 알았으면 안 죽였을 텐데. 뭐, 어차피 죽은 사람은 죽은 거니까 후회해 봤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아르안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간다.

"시엘라는 이제 절대로 다시 볼 일이 없으니까."

시엘라는 죽었다.

최소한 아르안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죽었으면 사과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시엘라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라면 아르안 자신이 한 일이 알려지지도 않을 것이다.

아니, 레티아가 알게 된 것처럼 사람들이 알게 될 가능성이 있기는 했다.

그러니 하루빨리 레티아에게 시엘라가 죽었다고 말해 준 사람을 잡아야 한다.

"그렇군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렐이 웃으며 말한다.

"아, 대화해서 즐거웠네."

아르안이 아쉽다는 듯 말했다.

아르안은 아렐의 진의를 단 하나도 읽어내지 못했다.

평소와는 다르게 말이 많아지기도 했다.

친한 친구가 하나 생긴 기분이다.

"나중에 다시 와줬으면 그때도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지."

누구던 간에 자신의 말을 털어놓을 상대가 필요했던 참이다.

아렐이 자신을 황태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분명 황태자 자리를 얻어내는 것에 도움을 준다는 소리겠지.

"나중에 뵙죠."

아렐이 돌아서며 말했다.

"아, 차기 네르데아 백작가 가주로써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특별히 기억해 주도록 하지."

아렐은 자신이 벌써 황제라도 된 듯이 구는 아르안을 보며 비웃고 있었다.

제 1 황자가 자신 동생의 수준을 낮게 평가한 이유를 대강 알 것 같았다.

'시엘라 누나가 돌아올 일은 없다고 했었지.'

그러나 과연 정말로 그럴까?

아렐이 얼굴에 옅은 웃음을 띠며 걸음을 옮긴다.

황자들을 만나본 성과가 있었다.

아렐은 제 1, 2 황자 모두 시엘라를 다시는 만나고 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황실 기사단을 움직인 게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다.

황실 내부의 권력 싸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정보를 모으면 될 일이다.

황제에게서 백작위 승계 허가서도 받아냈다.

이제 황궁에 별다른 볼일은 없다.

`황자들 중에선 시엘라 누나가 살아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없어.`

다들 호의를 가지고 있는 듯한 레티아가 누구인지는 조금 궁금했지만, 이제 네르데아 백작가로 돌아갈 시간이다.

아르안의 반응으로 추측해 보건대 황실 기사단의 누군가가 레티아에게 시엘라가 죽었단 정보를 넘긴 것 같다.

그게 누구인지도 조금 궁금해진다.

`시엘라 누나가 저 인간들과 다시 마주칠 일이 생길까?`

시엘라 측에서 다시 만나는 것을 거부할 것 같다.

하지만 나중에 시엘라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 저들의 표정이 어떨지 궁금한 것이 사실이다.

아렐은 백작가로 돌아가는 마차에 올랐다.

"안녕, 아렐."

아렐의 집무실로 찾아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 시엘라 누나. 내가 먼저 찾아가려고 했는데."

아렐 역시 반갑다는 듯 대답한다.

"황궁에 갔다 왔다고 들었어. 백작위 승계 때문이랬나?"

"응, 그것 때문에 황제도 만나고, 황자들이랑도 만나고 왔어."

베르타가 이야기해 준 것이 사실어었다.

내가 방에서 며칠간 더 쉬라는 말에 쉬는 동안, 아렐은 황실에 갔다가 돌아왔다.

"황자?"

아마 알트레온을 말하는 것이겠지.

공작가에서 내쳐질 떄의 기분이 되살아나려 하기에, 별로 듣고 싶은 이름은 아니다.

아니면 아르안을 만났다는 걸까?

나를 죽이도록 한 장본인.

알트레온과 아르안, 두 형제는 사이가 좋으니 서로 같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궁금한 것이 많다.

"그냥 별 일은 없었어. 황자들끼리 권력 다툼을 한다길래 궁금해서."

아렐이 말한다.

권력 다툼?

"1 황자랑 2 황자가?"

"아, 몰랐구나."

"어째서 서로 싸우는 거야?"

소설 속에서도 전혀 싸우지 않던 형제들이다.

그런데 갑자기 권력 다툼이라니, 예상치 못한 일이다.

"자세한 원인은 나도 모르겠어."

아렐이 어깨를 으쓱인다.

"그렇구나."

이야기가 소설 속의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해진다.

나름대로 평화로운 분위기의 소설이었는데, 소설 속 세계인 이곳도 평화로워야 하는 게 아닌가?

"몸은 괜찮아?"

"응, 계속 괜찮았어."

거의 반강제로 방으로 들여보낸 탓에 엄청나게 푹 쉴 수 있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다.

하려고 했던 말을 다시 생각해 내는 중이다.

황자들끼리 싸웠다는 소식에 당황에 잠시 무슨 말을 하려고 찾아왔는지 잊어버렸다.

"맞다, 아렐."

"응?"

"내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었지?"

백작가에 머무르게 해 주는 대가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내가 가진 소설 속 지식을 동원해서 돕기로 마음먹었다.

악역 '시엘라'가 되어서 행동해 오기만 한 터라, 소설 속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조금 고심했다.

돕겠다고 했으면 제대로 도와야 한다.

아렐을 도와줄 만한 방법을 떠올려서 다행이다.

"누나, 무리해서 도와주려고 할 필요는 없어. 난 그냥 누나가 여기서 평화롭게 지냈으면 하는 거니까."

아렐이 그렇게 말하며 작게 웃음 짓는다.

평화롭게 지냈으면 한다?

애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자체가 '평화롭게 사는 것'이었다.

적당히 악역을 연기하다가 자리에서 내려오면 나머지는 여주인공인 레티아가 알아서 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다.

레티아가 일하는 동안 나는 구석진 마을에 가서 조용히 살려고 그랬었다.

이곳 네르데아 백작가에서 그렇게 지낼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래도 아렐이 내가 평화롭게 지냈으면 한다는데 적당히 고맙게 받아들이면 되겠지.

"무리하는 건 아냐. 그냥 너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이니까."

"정보?"

아렐이 흥미롭다는 듯 쳐다본다.

"들어 봐."

소설 속 지식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이런 식으로 마구 알려주고 다니면, 소설 속 흐름을 거스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 정도는 감수하기로 했다.

내가 아렐에게 알려준 지식은 간단했다.

대외적으로 유명한 여러 가문의 약점.

예를 들자면 내가 있던 아르테르크 공작가의 경우, 버려진 공녀인 나에 대한 사실이 약점이 되겠지.

"...퀘덴 가문은 숨겨진 사생아가 꽤 많아. 그리고 체리엘 자작은 황가에서 재물을 횡령하고 있고..."

쓸모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기억해 냈다.

상당수는 잊어먹은지 오래였지만, 몇 개 정도는 기억이 난다.

가끔은 내가 기억력이 나쁜 편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다.

"-잘만 이용해 먹으면 네르데아 백작가를 공작가로 승격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을 마쳤다.

내가 가진 지식을 전부 전달해 준 것은 아니다.

"누나, 대단해!"

아렐이 가까이 와서 손을 잡으며 말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준 정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의심해 볼 만 한데, 아렐은 내가 말한 거라면 뭐든지 믿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손에 넣은 거야? 아, 아르테르크 가문이니까 가능했으려나. 확실한 것 맞지?"

평상시와는 다르게 아렐이 들떠서 말한다.

"뭐, 맞아."

원래대로라면 여주인공인 레티아가 나중에 알아내야 할 정보지만, 소설을 전부 읽은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었다.

명문가가 가진 약점.

죽어도 숨기고 싶어하는 종류의 진실.

소설 속 네르데아 가문은 항상 정보 부족에 시달렸다.

전대 네르데아 백작이 가문을 내팽개친 탓에 여타 귀족가에서 제외된 탓이다.

아렐 역시 그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누나, 원하는 거 있어?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뭐든지?

그냥 이대로 백작가에 머무르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은 거래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럼 서재를 좀 이용해도 될까?"

재밌어 보이는 책들이 많아 보였다.

전생에서도 많은 책을 읽어온 만큼, 내 취미는 책 읽기다.

방에서 쉬는 동안 베르타에게 부탁해 책 몇 권을 빌려 읽곤 했지만, 마음 놓고 계속 읽을 수 있었으면 했다.

"서재? 서재라면 마음대로 써도 괜찮아. 다른 사용인들한테 말해 둘게. 다른 부탁은 없어?"

"응."

"책 읽는 걸 좋아하는지는 몰랐네."

"레티아랑 있지 않을 때에도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레티아?"

아, 생각이 말로 나왔다.

아렐은 레티아가 누구인지 모르지 않나?

알아도 그냥 이름을 좀 들은 정도겠지.

"그러고 보니까 제 2 황자랑 이야기했을 때 레티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어?"

하긴, 아르안은 나름 소설의 남주인공 중 하나고, 레티아와 친하게 지내곤 했으니까.

레티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법도 했다.

"다들 사이가 안 좋은 모양이던데?

"...뭐?"

사이가 안 좋아?

"응, 제 1 황자도 그렇고, 제 2 황자도 그렇고, 레티아가 거리를 두는 것 같더라."

"어어?"

아르안은 그렇다 쳐도, 알트레온까지?

알트레온과 레티아는 소설 초반부부터 후반부까지 사이가 안 좋은 적이 없는 커플이었다.

조금 전에 황자들끼리 권력 다툼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일이 이상해진 것 같다.

원래대로라면 시엘라가 공작가에서 쫓겨난 이후 사이가 좋아져야 하는 건데.

"레티아 쪽에서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관계로 보였어. 시엘라 누나도 아르테르크 가에 있었으니 알고 있지 않아?"

"사이가 나쁘게 될 줄은 몰랐어."

잠깐, 그렇다면 레티아의 신성력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알트레온 없이는 레티아가 자신에게 신성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할 터였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갈지도 모른다.

진짜 악역들을 막을 사람이 단 하나도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는 곤란하다.

내 평화로운 삶의 대전제로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이 여주인공의 활약.

레티아가 소설 그대로 평화로움에 위협을 가하는 악역들을 남주인공들과 함께 제거해 주었어야 했다.

내가 공작가를 떠나면서 일이 꼬인 걸까?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니 답답하다.

"레티아가 알트레온을 거절했다고 그랬어?"

"대화해 본 바로는 그랬어."

아렐이 대답해 주었다.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싶을 정도네."

대체 뭔 짓을 하면 레티아가 알트레온에게 화를 낼 수 있는 지 모르겠다.

워낙에 순한 성격인 데다가 남을 잘 미워할 줄 모르는 아이인데.

"그럼 직접 가서 볼래?"

아렐이 말했다.

직접 가서 볼래? 라니, 뜬금없는 소리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니 물론, 알트레온이 어떻게 레티아를 화나도록 만든 것인지 직접 보고 싶긴 했지만.

그랬다간 진짜로 죽을지도 모른다.

분명 아르안이 다시 나를 죽이려 들겠지.

무의식중에 손을 복부에 가져다 댔다.

황실 기사의 검에 또 찔리는 일은 사양하고 싶다.

"미안, 내가 이상한 소리를 했네."

머뭇거리며 아렐이 말했다.

"아니야, 난... 물론 저쪽 상황이 궁금하긴 하지만 죽는 건 싫어서."

죽은 줄 알았던 내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긴 하다.

하지만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문제는 그 평화가 나에게 찾아오긴 할지 전혀 모르겠다.

레티아와 알트레온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은, 레티아가 신성력을 깨우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의미를 잃잖아.`

레티아가 소설 속과 같이 성장하기만을 바랐다.

여러 가지 변수를 배제하고 시엘라가 공작가에서 쫓겨나는 것까지 완벽하게 진행했는데.

어쩌면 과거의 내가 무언가 일을 그르쳤을지도 모른다.

나는 소설 속 전개를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던가.

`그래도 돌아가는 건 무서워.`

아렐이 아니었더라면 정말로 죽었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 갔더라도 황실 기사단에는 당해낼 수강 없었으니까.

"...누나, 괜찮아?"

안색이 어두워진 것을 눈치챈 아렐이 말했다.

"응, 괜찮아."

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건 여전히 익숙하지가 않다.

습격받은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검에 찔렸을 떄의 그 감각이 여전히 기억나는 게 문제다.

"미안, 그래도 절대로 다치지 않게 지켜줄 테니까."

아렐이 자신을 믿으라며 말한다.

"아하하, 아렐 너랑 같이 다닐 수 있다면 황실이라도 돌아다닐 수 있을 텐데."

웃음이 나왔다.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 준다는 감각 자체가 참 신선하다.

아르테르크 가에서는 그 누구도 악역 시엘라를 걱정해 주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고마워."

결국엔 직접 가서 봐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레티아가 제대로 여주인공의 몫을 다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길 테니까.

다시는 소설 속의 주연들과 엮이지 않고 평화롭게 살았으면 했다.

레티아가 여주인공의 몫을 다하기를 바랄 뿐이다.

레티아가 알트레온과 화해하든가 해서 자신에게 있는 힘을 알아챌 거라고 믿어야겠지.

설마 화해하지 못할만큼 심각한 일로 싸우지는 않았겠지.

그동안 아렐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다.

아렐은 내가 넘겨준 정보를 기반으로 네르데아 백작가를 위한 여러 작업들을 하는 모양이다.

아렐이 바쁘게 자기 일을 하는 동안,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 틀어박혀 보냈다.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는 네르데아 백작가의 서재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공간이었다.

아르테르크 공작가에서는 가만히 죽쳐서 책만 읽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

"재밌네."

서재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책과 같은 즐길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

단순히 시골 마을로 가서 사는 것에 성공했어도 분명 무료했을 것이다.

돈을 모아서 집에 도서관 하나 차리고 살면 좋을 텐데.

"집에 도서관을 차리지 말고 도서관을 사서 집으로 할까?"

당장은 그럴만한 돈이 없지만.

도서관도 그렇게 흔한 건물은 아니고.

그동한 책을 읽으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다시 생각해 봐도 레티아가 알트레온과 사이가 나빠졌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다.

아렐이 나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사이가 나빠진 것이 확실할 텐데.

아르안과 알트레온의 사이도 계속 좋지 않은 상태라고 들었다.

전속 하녀 베르타의 말로는 평민들 사이에도 황가에 새로운 권력 다툼이 생겼다고 하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고 한다.

"레티아가 알아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이런 식으로 계속 책만 보면서 뒹굴거리고 싶다.

네르데아 백작가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편했다.

이런 식으로 몇 주 가량 시간을 보냈다.

책만 읽고 있어도 시간이 말도 안 되게 빨리 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궁금증은 커져만 갔다.

'대체 아르테르크 공작가와 황실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계속해서 황실 쪽 생각만 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레티아가 신성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공작가에서 버려진 보람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정말 외진 시골로 가서 틀어박혔더라면 이런 애매한 소문을 들을 일도 없었을 텐데.

"외출하고 싶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사람이 나태해진다는 건 정말이지 무서운 일이다.

아무리 황실 기사단에게 죽은 것이 겁난다고 해도 이제 슬슬 밖으로 나가 볼 때가 됬다.

"아렐, 바깥에 나가 보고 싶어."

"밖에?"

"시간이 될 때 같이 산책하지 않을래?"

백작가 저택 근처에 뭐가 있는지 아직 살펴보지 못했다.

"알겠어. 누나. 지금 같이 가자!"

아렐이 웃으며 바로 화답한다.

나갈 채비를 마친 후에 다시 대화를 나눴다.

"아렐, 혹시 다른 소식 들어온 건 없어? 레티아랑 황자님들에 대해서라던가."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어. 아, 황자들끼리 싸우는 건 더 심화됬다고 하던데. 고위 귀족 가문들이 끼어들기 시작했다더라."

"그렇구나..."

아쉽다. 빨리 레티아랑 알트레온이 화해해줘야 하는데.

아니지, 어쩌면 이곳까지 소식이 닿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다시 사이가 좋아진 채로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내가 걱정할 것은 없다.

그때부턴 내 미래 걱정을 하긴 해야겠지만.

"시엘라 누나, 가자."

아렐에 말에 따라 백작가 밖으로 나왔다.

네르데아 백작가 근처에 있는 마을이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네."

"곧 축제를 열어서 분주해진 거야. 알고 있지? 황제 탄신일이라고 그러는 거야."

조만간 황제의 생일이 다가온다고 축제 준비를 하는 것 같다.

황제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으, 이런 황제의 자리를 알트레온이나 아르안이 가져갈 거라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치 않다.

여러 잡생각과 함께 계속 마을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자니 묘하게 기분이 좋아졌다.

"그럼 이제 돌아갈까?"

"응, 아렐. 축제 때 다시 나오지 않을래? 재밌을 것 같아."

이곳에서 쭉 눌러앉아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조금 들 정도였다.

이것도 평화로운 생활이라면 평화로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저택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아, 백작님. 오셨군요."

저택에 발을 들이자마자 하인 하나가 말을 걸어왔다.

아렐은 이제 정식으로 백작위를 계승받았기에, 백작님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나?"

"조금 전 황가에서 초대장이 왔습니다."

"황가에서?"

아렐이 초대장을 집어든다.

내용을 확인한다.

나는 아렐의 옆에서 고개를 기웃거리며 무슨 초대장인지 구경했다.

"아렐, 무슨 초대장이야?"

초대장에는 황가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그 내용은 짐작이 가지 않는다.

"...가면무도회 초대장."

"무도회?"

이제 막 사교계에 발을 들이려 하는데 무도회라.

"그것이 아마도 황제 탄신일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분명 황제의 생일마다 무도회를 열곤 했다.

아르테르크 공작가에 있었을 적, 레티아와 나에게도 초대장이 오곤 했지만 나는 항상 무시하곤 했다.

무도회까지 따라가서 레티아를 괴롭힐 필요는 없었으니까.

레티아는 항상 무도회에 파트너를 데리고 갔으니 따라간다 한들 괴롭힐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때동안은 공작가에서 혼자 쉬곤 했다.

"아렐, 참가하면 네르데아 백작가의 이름을 알릴 수 있을 거야."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

"그렇긴 해도, 난 파트너가 없는걸."

아렐이 별수 없다는 듯 말했다.

"파트너?"

"응? 이런 부류의 무도회는 원래 그런 거잖아? 초대장에서도 동반 참석을 권장한다고 써 있는데."

"그, 그런가?"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레티아가 무도회에 갈 때면 항상 남주인공이 곁에 붙어 있던 거로군.

하긴, 나라도 이런 류의 무도회에 혼자 뻘쭘하게 서 있기는 싫을 것 같다.

특히 아렐의 경우엔 사교계에 아는 사람도 얼마 없을 테니까 더 심하겠네.

하지만 여기서 무도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황실과의 관계도 약해질 것이고, 영향력을 늘려가는 작업도 더 귀찮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내가 같이 가 줄까?"